

KICE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세미나

우리나라와 세계의 교육과정 정보

- 일 시 : 2011. 04. 29 (금) 15:00 - 17:3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대회의실 111호
- 주 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 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세미나
우리나라와 세계의 교육과정 정보

연구자료 ORM 2011-11

발 행 일 2011년 4월 29일
발 행 인 성 태 제
발 행 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100-784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팩 스 (02)730-7487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동진문화사(02-2269-4783)
I S B N 978-89-6313-697-4 93370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945년 이후 유, 초, 중등학교급의 총 12개 학교별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포함 세계 17개 국가의 교육과정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www.ncic.re.kr;이하 NCIC)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 초 공식 오픈한 NCIC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입니다. 이번에 NCIC의 개설 기념으로 본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학회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교육과정 정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제시하여 교육 경쟁력 확보와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정보는 해당 국가의 교육 체계 및 지향, 그리고 그 성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바, 이러한 정보의 공유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이 태생하던 1945년 이전 조선 시대, 개화기 및 일제 강점시기의 교육과정 정보까지 교육과정 변천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세계의 교육과정의 2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NCIC에서 수행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 지수가 높은 시점에 뒤늦게나마 교육과정의 주요 사료(史料)와 글로벌 교육과정 자료들이 연구의 바탕위에 표준화 작업을 거쳐 DB화되고, 그 결과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학술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나눠 주시고, 활발하고도 진지한 논의와 교류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원류를 확인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운영해가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 태 제

한국교육과정학회장 김 대 현

세미나 일정

사회 : 서경혜 (이화여자대학교)

~15:00	등록 및 입장
15:00~15:10	개회사 - 김대현 (한국교육과정학회장)
15:10~16:00	<세션 1: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보> 일제시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교육과정 발표자 : 강명숙 교수(배재대학교) 토론자 : 이윤미 교수(홍익대학교, 한국교육사학회장)
16:10~17:00	<세션 2: 세계 교육과정 정보>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향방(向方) 발표자 : 김진숙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자 : 홍원표 교수(연세대학교)
17:00~17:30	종합토론

차례

[제 1 주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보	1
-----------------------------	---

발표: 강명숙 교수(배재대)

토론: 이윤미 교수(홍익대)

[제 2 주제] 세계 교육과정 정보	29
---------------------------	----

발표: 김진숙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홍원표 교수(연세대)

【주제 발표 1】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보

[발표] 강명숙(배재대)

[토론] 이윤미(홍익대)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 교육과정*

강명숙(배재대)

I 문제제기

식민지기 교육정책은 교육기회 제공과 학교 설립 등과 같은 제도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잘 드러나지만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과 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관찰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기 교육과정을 제시체제를 살펴보고, 특히 초등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규에 나타난 문서상의 교육과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면 교과서를 통해 교육정책을 분석하거나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육적 의도에 따라 특정내용을 선정 조직 배열한 것이다. 즉 교과서는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및 배열의 기준인 교육과정에 따라 틀이 만들어지고 취사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시대 교과서 정책과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나아가 일제시대에는 교육과정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법령준거주의가 확립되어가던 시기로서, 국가수준의 문서상의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제시대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어떻게 변했으며,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수준과 체계가 어떠했는지에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등교육 과정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분류 방식이 반영되어있는 교과목 구성과 실제 수업 전개의 토대인 수업 시수의 증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이 되는 교수주의사항의 변화를 통해 교육 목적과 교과 수업이 조선총독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강조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시기 초등 학교교육이 무엇이며,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일제시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발행 현황,

교과서 내용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시기 발행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교과서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 수신, 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음악, 체육, 미술, 지리, 역사, 이과 등 과목별로 그리고 학교급별로 개별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¹⁾ 그러나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내용을 분석한 연구²⁾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도 일제시대 교육과정 관련 법규 조항이나 시수표 등을 시기별로 정리한 개론서³⁾는 있지만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는 드물다. 앞으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과서의 연관성 속에서 일제시대 교육 정책과 학교교육의 실재를 재구성해내는 작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II 일제시대의 교육과정 제시 체계

1. 교육과정 변천의 시기구분

일제시대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법령 준거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법령준거주의란 각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종류의 교과와 교과의 목적,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및 운영상의 주의 사항, 학교급별 교과목과 그 정도, 시간배당 등의 사항을 법규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법령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전근대교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갑오교육개혁기에 제정된 각급 학교령에서부터 시작

*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2010년) 「우리나라의 1945년 이전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사학회(2010)의 『교육사학연구』 제20집 제2호에 실린 본인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1)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로 석사학위논문이나 개별 연구논문이 많이 있지만 권오현(『朝鮮總督府における歴史教育内容史研究:國民意識形成の論理を中心に』, 廣島大學 博士學位論文, 1999), 박영숙(『植民地時代 ‘普通學校國語讀本’ の研究』, 久留米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李淑子(『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 ほるぷ出版, 1985) 등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 2) 이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로서는 물리과를 분석한 김원중의 연구(『일제강점기의 중등학교 물리교육 내용과 교수법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와 체육과를 분석한 西尾達雄의 연구(『日本植民地地下朝鮮における學校體育政策』, 明石書店, 2003)를 들 수 있다.
- 3) 대표적으로 유봉호의 『한국교육과정사연구』(교육연구사, 1992)와 함종규의 『한국교육과정변천사 연구-조선조 말부터 제7차교육과정까지』(교육과학사, 2003)의 저서가 있다.

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교육령 및 각 학교 규정, 조선총독부 훈령 등에 의해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제시대 교육과정은 조선교육령의 제·개정, 학교 규칙 및 규정의 제·개정을 준거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일제시대 문서상의 교육과정 변천 및 실상을 드러내는 데는 의미 있다.

<표-II-1> 일제시대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

시기	제·개정 내역	
1차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 조선교육령(1911년 11월 1일 시행)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0호 보통학교 규칙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1호 고등보통학교 규칙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2호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실업학교 규칙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 사립학교규칙
		1919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07호 고등보통학교 규칙 개정
		1919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08호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개정
		1915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 개정사립학교규칙
		1918년 2월 21일 조선총독부령 제18호 서당규칙
	1920년 11월 10일 칙령 제 529호 조선교육령 개정	
		1920년 11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181호 보통학교 규칙 개정
		1920년 11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180호 고등보통학교 규칙 개정
		1921년 4월 11일 조선총독부령 제54호 고등보통학교 규칙 개정
		1921년 4월 11일 조선총독부령 제55호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개정
2차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 조선교육령(1922년 4월 1일 시행)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 보통학교 규정
		1922년 4월 14일 경기도 보통학교규정 시행세칙 제정(총독부관보 1922.4.17)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 실업학교 규정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6호 고등보통학교 규정
		1922년 2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14호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
		1922년 2월 칙령 제11호 유치원 규정
	1929년 4월 18일 칙령 제 82호 조선교육령 개정	
		1929년 4월 18일 조선총독부령 제35호 사범학교 규정 개정
		1929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58호 보통학교규정 개정
		1929년 6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55호 서당규칙 개정
	1929년 12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14호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개정	

시기	제·개정 내역	
		1931년 1월 7일 조선총독부령 제2호 고등보통학교 규정 개정
		1932년 1월 18일 조선총독부령 제13호 고등보통학교 규정 개정
3차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 조선교육령(1938년 4월 1일 시행)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 소학교 규정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5호 중학교 규정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6호 고등여학교 규정
4차		1943년 3월 8일 칙령 제113호 조선교육령(1943년 4월 1일 시행)
		1941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90호 국민학교 규정
		1943년 1월 중등학교령(수업연한 4년으로 단축)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58호 중학교 규정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59호 고등여학교 규정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60호 실업학교 규정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61호 실업보습학교규정
		1945년 5월 21일 칙령 전시교육령
		1945년 7월 1일 전시교육령 시행 규칙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 내내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제·개정은 번번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14년 보통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체조는 체조, 교련 및 유희를 가르친다”고 하여 교련 내용영역을 <체조>교과에 포함시키⁴⁾거나, 1927년 <일본역사>를 <국사>로 교과목명을 변경하는 개정이 있었다⁵⁾.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폭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개별 교과 수준의 교육과정 변천은 반영하지 않았다.

2. 교육과정 제시 체계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제시 체계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 시기별로 교육과정 제시 체계 및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1911년 8월 23일 칙령으로 반포된 조선교육령에서 교육(제2조), 보통교육(제5조), 보통학교(제8조)의 교육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에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4)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6월 10일자, 조선총독부령 제93호.

5) 조선총독부 관보 1927년 3월 3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3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고 하는 위임 규정을 두어,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조선교육령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보통학교 교육과정은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된 보통학교규칙에서 제시하는데, 교육과정은 제2장 교과목 및 편제의 제1절 교과목 및 교칙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과목 및 교칙에서는 교과목의 종류, 교수상의 주의사항, 각 과목의 교수요지 및 교육내용과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조에서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재봉 및 수예, 농업초보, 상업초보로 하며”라고 하여 교과목의 종류를 열거하였다. 각 과목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의 조항을 할애하여 교과목의 교수요지 및 교육내용, 교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과 과목은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규칙 12조 이과는 자연계의 통상적인 사물, 현상, 그것들의 상호관계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대요를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생활의 실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이과는 식물, 동물, 광물 및 자연현상 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동이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에 기여하고 실제생활에 수요(須要)한 내용을 선택하여 교수하고, 인체의 생리 및 위생의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여아를 위해서는 가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이과를 가르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지(實地)의 관찰에 바탕하거나, 또는 표본·모형·그림 등을 제시하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2조)

그런데 보통학교규칙 제33조에서 “보통학교는 일지, 일과표, 교수세목, 학교일람표, 교과용도서 배당표, 교지·교사의 도면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학교에서는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칙에 근거하여 교수세목을 마련해야 했다. 교수세목은 “교과과정표에 의하여 한 학년간의 교수시수에 따라 교수재료를 매학기 매월 또는 매주에 배정하는 것”⁶⁾이었다. 제1차 및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육과정 제시체제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표-Ⅱ-2>와 같다.

6) 學部(1910), 『普通教育學』, 韓國政府印刷局, 25쪽.

<표-Ⅱ-2> 제 1·2차 조선교육령기 교육과정 제시 체제 및 법적 근거

수준	내용	법적 근거 및 관련 조항	
		제1차 조선교육령기	제2차 조선교육령기
국가수준	총론		
	교육의 목적	조선교육령 제1장 강령 제2조	-
	보통교육의 목적	조선교육령 제1장 강령 제5조	-
	학교급별	보통학교 교육의 목적	조선교육령 제2장 학교 제8조
		교과목 및 과정 사항 조선총독 위임	조선교육령 제23조
		보통학교 교과목의 종류	보통학교규칙 제7조
		보통학교 교수 주의사항	보통학교규칙 제8조
		보통학교 각 교과와 교수요지	보통학교규칙 제9조~19조
		보통학교 교수정도 및 매주 교수 시수	보통학교규칙 제20조 및 별표
		보통학교 교육과정 운영 재량	보통학교규칙 제21조
	과목별	학교체조교수요목	조선총독부 훈령(1914)
단위학교수준	개별 단위 학교의 과목별 교수세목	보통학교규칙 잡칙 제33조	보통학교규정 제35조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육과정 제시 체계는 제2차 조선교육령기까지 유지되었다. 1920년 보통학교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칙을 개정하였지만 교육과정 제시 체계에서의 특이한 변화는 없었다. 또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육과정 제시 체계도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것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다만 조선교육령의 조항 조직 구성이 변하여 교육, 보통교육의 목적 규정이 생략되고, 각급 학교 교육의 목적만 제시되었다.

그런데 교육과정 제시 체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차 조선교육령기부터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체조과의 경우 교수요목을 별도로 제시하는 점이다. 1914년 훈령 제27호로 <학교체조교수요목>을 제정⁷⁾하여 학년별로 체조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영역과 항목,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3차 조선교육령기 이후부터는 <표-Ⅱ-3>과 같이 교육목적을 포함하여 교

7) 「學校體操教授要目」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1924년 4월 개정되었고, 또 3차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조응하여 1937년 5월 개정되었다. 그리고 1941년 국민학교령 제정에 따라 「국민학교 체련과 교수요향과 실시세목」을 다시 제정하였다.

육과정 관련 부분은 모두 소학교규정과 국민학교규정에서 다루었다. 조선교육령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사라졌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이 일어났지만 교육과정 제시의 체계나 법적 근거 등에서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채,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체제가 지속되었다.

<표-II-3> 제3·4차 조선교육령기 교육과정 제시 체계 및 법적 근거

수준	내용	법적 근거 및 관련 조항	
		제3차 조선교육령기	제4차 조선교육령기
국가수준	소학교/국민학교 교육목적	소학교규정 제1조	
	소학교/국민학교 교과목의 종류	소학교규정 제13조	국민학교규정 제1조
	소학교/국민학교 교수 유의사항	소학교규정 제16조	국민학교규정 제2조
	소학교/국민학교 각 교과목의 교수요지	소학교규정 제17조~29조	국민학교규정 제3조~25조
	소학교/국민학교 교수정도 및 매주 교수 시수	소학교규정 제30조 및 별표	국민학교규정 제28조
	소학교/국민학교 교육과정 운영 재량	소학교규정 제14조, 제15조	국민학교규정 제27조, 제30조
	과목별 학교체조교수요목	조선총독부 훈령	조선총독부 훈령
학교 수준	개별 단위 학교의 과목별 교수세목	소학교규정 제37조	국민학교규정 제33조

제3·4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과목별 교수요목 제정이 점차 늘어났다. 과목별 교수요목 제정은 일본 본국과 조선의 학교제도를 동일화하려고 했던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 전후부터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과목별 교수요목 고시 제도를 조선에 도입한 것이다. 사실 중등학교의 경우 1931년부터 일본 본국의 문부성령에 의해 조선의 특수한 과목으로 인정되던 수신, 조선어 및 한문, 실업, 체조의 4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은 일본의 교수요목을 따르도록 하였다. 과목별 교수요목은 대개 학교급별 구별 없이 교육연한별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초등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 교육과정에서도 과목별 교수요목 제도가 확대되고 있었다.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 및 법적 근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수준이 점차 하향되고 있었다. 조선교육령과

각급학교규칙 및 규정에서 각급 학교 규정과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교육과정 제시의 법적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 개편의 절차적 편의성을 추구한 것이다. 법적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과목 개설 및 시수 변경, 교과 내용 영역 구성의 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과목별 교수요목 제정과 관련하여, 법적 수준이 낮아지면 일본 본국의 교육과정과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정과의 공통성 혹은 차이성 조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식민지 후기로 가면 학교명, 수업연한, 교과목 등 교육제도 면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줄이지만, 여전히 조선의 교육과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할 것인가는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공통성을 강조하려면 일본의 교수요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차이성을 강조하려면 교수요목의 교재 배당을 달리하여 조선에만 적용되는 교수요목을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제정⁸⁾하면 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제시 체계가 점차 세분화되었다. 교육과정 제시 체계가 세분화되면, 즉 과목별 교수요목⁹⁾의 제정이 늘어나면 국가수준에서 제시되는 교육과정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가 미시적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통제의 강화와 용이함을 의미하게 된다. 교수요목 제정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에 기여하였다.

3. 일제시대 교육과정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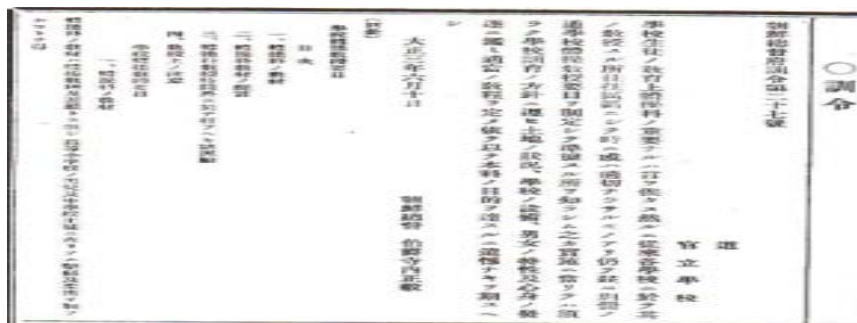
교육과정을 일컫는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조선교육령과 학교규칙 혹은 규정에서는 ‘교과목 및 그 과정’, ‘교칙(敎則)’, ‘교과와 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과목의 종류와 과목별 교수요지, 교과별 시간 배당을 지칭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교칙’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또 학교급별 교과목별로 ‘교수요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의 목표와 성격을 다루고 있다. 교수요지에 따라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지만, 교수요지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지도하기에는 미흡하였다. 교수요지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과 수준에서

8) 실제로 1914년 제정된 「학교체조교수요목」은 일본 본국과의 차이성을 강조하여 일본 본국의 「체조교수요목」을 조선의 상황에 맞게 교재를 삭제하고 배당을 달리하고 작성한 것이다.(西尾達雄(2003), 『日本植民地朝鮮における學校體育政策』, 明石書店, 123쪽 및 139쪽)

9) 예를들어 「체조과교수요목」은 체조과의 교육, 체조과 교재의 배당, 체조과 교수시간 외에 해야 할 운동, 교수상의 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요목’을 제정하거나 혹은 학교 수준에서 ‘교수세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교수요목은 교과별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교육 재료의 편성과 배당을 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교과서 편찬이 어렵거나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도해야 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교과서 없이도 교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914년 제정된 ‘체조과 교수요목’이 그 예인데, 아래 그림은 당시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한 것이다.



[그림-11-1] 학교체조 교수요목(조선총독부령제 27호, 1914)

교수요목은 체조과 외에도 ‘직업과교수시설요항및교수요목’와 같이 직업과 등의 과목에서도 훈령으로 제정되어 고시되었으나 모든 교과목에서 교수요목이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등교육이나 실업교육은 일본 본국의 교수요목에 의거하여 가르치는 교과가 많았다. 일제후기로 갈수록 교수요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세세하게 제시하였다. 예를들어 1914년의 ‘체조과 교수요목’은 10쪽 남짓의 분량이나, 교련과목이 신설되고 또 일제후기로 갈수록 체조와 교련 교과목이 중시되어, 1944년 제정 고시된 ‘국민학교체련과교수요항및실시세목’은 무려 391쪽 분량의 별도 책자로 만들어졌다.

교수요목은 훈령으로 즉 국가수준에서 제정하여 내리는 지침이라면 교수세목은 학교장이 교수요목에 의거하되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후 보고하는 것이다. 교수세목은 실제로 한 교수 단위시간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계획서¹⁰⁾로서 교수세목의 작성과 비치는 조선총독부령에서 학교장에게 부과한 의무사항이었다. 따라서 개별 학교장은 각 학년의 과정표 및 각 교과목의 ‘수업세목’을 학년별, 학기별, 월별 혹은 주별로 정하여 보고하였다. 교수세목 작성 예는 <그림-11

10) 岡九雄(1940), 『朝鮮教育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40, 72쪽.

-2>와 같이 1914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봉과 교수세목’이다.

[그림-11-2] 재봉과 교수세목(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부속보통학교 여고발제54호, 1914)

정리하면 일제시대 문서상의 교육과정은 <표-II-4>와 같이 교칙, 교수요지, 교수요목, 교수세목의 단위 수준으로 작성되었다. 교칙, 교수요지, 교수요목, 교수세목의 네 수준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제시는 교육과정 정책의 성립과 교육과정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가르칠 교재 혹은 교과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교육과정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II-4> 일제시대 교육과정 관련 용어

수준	용어	사용례
국가수준	교과목 및 그 과정, 교과, 교칙, 과목	보통학교 교과목 및 교칙(敎則)
학교급별	교수요지	보통학교 수신과 교수요지
교과목 수준	교수요목, 교수요항	학교 체조 교수요목 국민학교 체련과 교수요항
단위 학교 수준	교수세목, 수업세목, 교수세칙	00보통학교 교수세목

Ⅲ 초등 교육과정의 변천

일제시대의 초등학교 교과목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과목 구성 및 교과명, 교과 순서, 수업시수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 교육의 목적이나 교과구성의 원리에 대한 일제시대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제시대 초등학교의 교과 구성 및 교과 분류의 방식은 <표-Ⅲ-1>와 같다.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교과영역은 크게 수신, 언어(일본어, 조선어, 한문), 산술, 이과, 예체능(체조, 창가, 도화), 직업, 역사지리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교과목을 시간으로 배당하여 한 시간에 하나의 독립과목을 가르치는 분과주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국민과, 리수와,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교과를 통합하여 마치 한 과목처럼 시간을 배당하여 가르치는 합과주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이과>나 <직업과>라는 교과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에 따라서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 혹은 제2차 조선교육령기부터 과목별로 합과주의 원리를 택한 것도 있다. 정리하자면 일제시대에는 분과주의에서 합과주의로 교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 구성의 원리가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분과주의가 갖기 쉬운 과목간의 연계성 약화 때문에 교과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과목간의 연계성 강화는 교수 유의사항에서 식민지기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었다.

<표-III-1> 일제시대 교과목 및 교과목명과 교과순서

제1차 조선교육령기			제2차 조선교육령기		제3차 조선교육령기		제4차 조선교육령기		
수신			수신		수신		국민과	수신	
국어			국어		국어			국어	
조선어및한문			조선어		산술			국사	
	일본역사(1920년 신설)		산술		국사			지리	
	지리(1920년 신설)		일본역사	국사로 변경(1927)	지리		리수과	산수	
산술			지리		이과			이과	
이과			이과		직업		체련과	체조	
체조				직업(1929년 신설)	도화			무도	
창가			도화		수공	남자과목	예능과	음악	
도화	1920년 시수 확보		창가		창가			습자	
수공		여자수의과목	체조		체조			도화	남자과목
재봉및수예		수의과목	재봉	가사및재봉으로 변경(1929), 여자과목	가사 및 재봉	여자과목		공작	
농업초보			수공	수의과목, 남여공통	조선어	수의과목		가사	여자과목
상업초보			농업	수의과목 1926년 삭제				재봉	
			상업					직업과	농업
		한문	수의과목	공업					
				상업					
				수산					
							조선어	수의과목	

* 굵은 글씨는 신설과목이며
기울어진 글씨는 수의과목 표시임

교과목 명칭의 변화를 살펴보면, 1927년 <일본역사>가 <국사>로 변경되었다. 또 <재봉및수예>가 1922년 <재봉>으로, 1929년 <가사및재봉>으로 다시 변경되었다가 1941년 예능과 <가사>와 <재봉>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41년 국민학교규정에서는 <산술> 교과명이 <산수>과로, <창가> 교과명이 <음악>으로, <수공>교과명이 <공작>으로 변경되었다.¹¹⁾

11) 교과명이 바뀐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정책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다

교과의 순서는 <조선어(및한문)>교과가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 수의과목으로 되면서 교과 순위가 하락하였고, 역사 지리 과목이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국민과에 포함되면서 <산수>보다 상위에 자리잡았다. <체조>는 제2차,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는 <도화>나 <창가>보다 하위였으나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다시 상위로 올라갔다. <체조>는 “현재 처하고 있는 미증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확호불발(確乎不拔)의 정신과 인고지구(忍苦持久)의 체력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으로 하여금 심신일체의 연성적 체육을 실천여행토록 하는 것이 극히 적절한 방책이라고 믿는다¹²⁾”라고 大野謙一 정무총감이 1939년 5월 29일에 개최된 각도 학무과장 및 도 시학관 회의에서 행한 훈시하고 있듯이 전시체제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된 것이다.

교과의 순서는 교과목의 단순한 배열상이 차이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교과 순위로, 교과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교과목 구성에서 남녀 성별로 교과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자에게 <재봉(및수예)>과목을 제공하여 남자보다 많은 시수를 이수하게 하였으며, 또 여자의 <가사및재봉>교과 이수로 인해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남자에게만 <도화>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여자와 <가사및재봉>을 연결시키는 교육적 논리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또 여자와 <가사및재봉> 과목의 연관성 못지않게 남자와 <도화>과목 사이에 어떤 내적 연관성이 성립한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목의 설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직업>과목과 역사 지리 과목의 개설과 조선어 및 한문의 수의과목화 및 폐지이다.¹⁴⁾ 역사 지리 교과는 통감부 시기에는 <역사지리> 라는 교과목명으로 통합되어 개설되었다. 그러나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역사와 지리 관련 과목이 사라졌다가 1920년 보통학교 규칙 개정을 통해 <일본역사>와 <지리>과목이 새로이 설치되었고 <일본역사>교과는 1927년 <국사>로 교과명칭이 바뀌었

루기 어렵다. 향후 교과별로 접근하는 연구에서 일본 본국과의 동향과 연결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2) 朝鮮總督府, 「(秘)昭和十四年五月 各道學務課長及道視學官會議ニ對スル指示注意事項等」, 1939.

13) 교과목 순서의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오성철은 교과목중 <수신>이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은 1880년 일본 개정교육령시에 복고파가 문부성에 진출한 이후 개정 교육령의 교과목 배열순서에서 수신을 가장 앞자리로 올리는 안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오성철(2000),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26쪽)

14) 한문의 폐지, 조선어 과목의 수의과목화 및 폐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역사 지리교과는 일제시대 내내 5학년 이후의 과정에서 가르쳤고, 다만 지리교과는 경우 1941년부터 4학년 과정에서 가르쳤다. 따라서 역사와 지리 교과목의 신설은 4년제 보통학교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리 과목을 개설한 이유와 4년제 보통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와 지리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 보통학교규칙을 개정하면서 발표한 훈령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을, 산술을 필수과로 하고, 기타 교과목은 토지의 정황에 따라 당분간 생략할 수 있다. 국민교육의 기초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본역사 및 지리를 부가한 것은 국민지조를 양성하고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에서는 기초교과목의 공부에 충분하지 않아 이들 교과목을 부가하여도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므로 종전과 같이 생략한다.¹⁵⁾

기초교과목의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제는 상급학교와 연결되지 않는 4년제 보통학교에 다니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역사 지리를 통한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다. 1920년의 조선교육령 개정이 조선인에게도 상급학교 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 지리 과목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과목과 그 과목의 이수라는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었다. 이점은 교과 개설 이후 교과 설편나 시수 조정 등에 관하여 특별한 논쟁이 없었던 것에서도 반증된다.

<직업> 과목은 1929년 조선교육령 및 보통학교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교과목이다. 하지만 제1차 조선교육령기부터 수의과목으로 개설된 <농업(초보)>과 <상업(초보)>을 1926년 폐지한 후 1929년부터 통합하여 설치한 교과이다. <직업> 교과가 도입되고 예체능교과보다 교과 순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또 <수공>, <가사 및 재봉> 등의 유사 교과와 별도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교육실제화 정책의 영향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연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에서 직업에 대한 의식을 계발하여 근로를 호애하는 정신을 진작시키고 산업에 관한 관념을 견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실업과를 개설하였다¹⁶⁾고 한다. 그러나 실업과 개설을 비롯한 교육실제화 정책은 3.1운동

15) 조선총독부 관보 1920년 11월 12일자, 조선총독부훈령 제55호.

이후 초등교육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독서교육의 폐해’, 상급학교 입학난, 봉급생활자로 취업하려는 취업난 현상 등을 해결하기위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국가 전도에 우려할 만한 사태 초래’를 막을 교육적 방도로 모색된 것이었다.¹⁷⁾

다음으로 교과에 실제 개설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교과에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업시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교과에 개설되어도 수업시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과는 사실상 무의미한 교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초등학교의 교과목별 수업시수를 살펴보면 <표-III-2>과 같다.

식민지 기간 동안 초등학교의 주당 수업시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학년별로 보면 증감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6시간에서 27시간으로 증가하다가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23시간으로 감소한 뒤 다시 24시간, 26시간 증가하였고 제4차 조선교육령기의 국민학교에서는 23시간으로 축소되었다. 4학년의 경우 27시간에서 시작하여 28시간, 29~30시간, 31시간, 32~34시간, 32시간으로 점차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6학년의 경우 29~30시간에서 시작하여 31시간, 34시간, 34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있어 일제시대 수업시수 증가 경향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수업시수 연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평균 입학연령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학년부터 수업시수를 늘이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수업시수의 변화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롭게 수업시수를 확보한 교과이다. 1920년 <도화>과목이 매학년 1시간씩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였고 <일본역사>와 <지리>도 5학년과 6학년에서 각각 2시간씩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였다. 1922년에는 여학생 과목으로 <가사 및 재봉>이 4학년부터 각 학년당 2~3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남녀별 수업시수의 차이를 가져왔다. 남학생에게 <체조>, <도화>, <직업>을 여학생보다 1~2시수 더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전체 시수의 차이를 완화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은 전체 시수가 29시수인데 반해 여학생은 30시수가 되었다. 이수 교과 및 시수에서 성별 차이를 두는 것은 제2차 조선교육령기 이후부터 제도화되었는데, 이러한 성별차이는 성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6) 조선총독부 관보 1929년 6월 20일자, 조선총독부훈령 제26호.

17) 오성철(2000),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80~283쪽.

<표-III-2> 일제시대 초등학교 교과목별 수업시수

학교급 및 학년별	수 신	국 어	일본 역사 /국사	지 리	조선어 및 한문/ 조선어	산술/ 산수	이 과	체 조	창가 /음악	습 자	도 화	수공/ 공작	재봉/ 가사 및 재봉	직 업	계
보통학교 (1911)	1	1	10		6	6		3							26
	2	1	10		6	6		3							26
	3	1	10		5	6	2	3							27
	4	1	10		5	6	2	3							27
	계	4	40		22	24	4	12							
보통학교 (1920)	1	1	10		6	6		3			1				27
	2	1	10		6	6		3			1				27
	3	1	10		5	6	2	3			1				28
	4	1	10		5	6	2	3			1				28
	5	1	9	2	2	4	5	2	3		1				29
	6	1	9	2	2	4	5	2	3		1				29
	계	6	58	4	4	30	34	8	18		6				
보통학교 (1922)	1	1	10		4	5		3							23
	2	1	12		4	5		3							25
	3	1	12		3	6		3	1		1				27
	4	1	12		3	6	2	남3여2	1		1		여2		남29여30
	5	1	9	2	2	3	4	2	남3여2	1	남2여1		여3		남29여30
	6	1	9	2	2	3	4	2	남3여2	1	남2여1		여3		남29여30
	계	6	64	4	4	20	30	6					8		
보통학교 (1929)	1	1	10		5	5		3							24
	2	1	12		5	5		3							26
	3	1	12		3	6		3	1		1				27
	4	1	12		3	6	2	남3여2	1		1		여2	남2여1	31
	5	1	9	2	2	2	4	2	남3여2	1	남2여1		여4	남3여1	31
	6	1	9	2	2	2	4	2	남3여2	1	남2여1		여4	남3여1	31
	계	6	64	4	4	20	30	6					10	남8여3	
소학교 (1938)	1	2	10		5	5			4			1			26
	2	2	12		5	5			4			1			27
	3	2	12		6	6		3	1		1	1			29
	4	2	12		6	6	2	3	1		1	1	여3	남2여1	남32여34
	5	2	9	2	2	4	4	2	남3여2	1	남2여1	1	여4	남3여1	남32여34
	6	2	9	2	2	4	4	2	남3여2		남2여1	1	여4	남3여1	34
	계	12	64	4	4	30	30	6	11			6	11	남7여3	
국민학교 (1941)	1		11			5		5			2				23
	2		12			5		6			2				25
	3	2	9			5	1	5	2	1	2				27
	4	2	8		1	5	2	5	2	1	남4	여2	여3	남2여1	32
	5	2	7	2	2	5	2	5	2	1	남4	여2	여3	남2여1	34
	6	2	7	2	2	5	2	5	2	1	남4	여2	여3	남2여1	34
	계			4	5					4			여9	남6여1	

1929년 <직업>과가 신설되어 4학년부터 매 학년당 3~4시간의 시수를 확보하였고, 1938년에는 <수공>이 매 학년 1시수씩 확보하였으며, 1941년에는 <습자>가 3학년부터 1시수씩 확보하였다.

수업시수가 점차 증가한 것은 <수신>, <음악>, <체조>, <도화>교과이다. <수신>은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 황민화교육이 강조되면서 증가되었다. 그외 교과는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어> 과목의 시수를 없애고 대신 확보한 것이다.

2. 교수주의사항의 변화

교수요지가 각 교과 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면 교수주의사항은 모든 교과에 걸쳐 교과를 운영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에 견주어 보면 특히 교수주의사항은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마다 개편의 취지와 강조사항을 담고 있다. 교수주의사항이 비교적 대규모의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개정된 것도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기 교육과정의 특징과 강조점이 교수주의사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보통학교규칙에서는 교수주의사항이 6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 1) 아동의 덕성을 함양하고 충량하고 근면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보통학교의 주요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과목에서나 항상 이에 유의하여 교수해야 한다.
- 2) 항상 질서를 중시하고 규율을 지키는 기풍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상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과목에서나 항상 이에 유의하여 교수해야 한다.
- 3) 국어는 국민정신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또한 지식·기능을 획득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과목에서나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지식·기능은 항상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택하여 가르쳐야 하며, 반복연습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5) 어떤 교과목에서도 교수는 아동의 심신발달의 정도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남녀구별은 물론 개인의 특성에 주의하여 각각 적당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¹⁸⁾

보통교육의 주요 목적은 “충량하고 근면한 국민을 양성”으로, 질서와 규율을 지키고 국민정신이 담겨있는 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면서 국민으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강조하는 이른바 국민형성 수단으로서의 초등 보통교육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수주의사항에서 특이한 점은 1909년 보통학교령시행규칙¹⁹⁾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신체의 발달’이나 ‘교과의 연관성 강조’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²⁰⁾ 신체의 발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체조가 독립된 교과로 있지만 독자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창가>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점과 연결된다. 식민지 후기로 갈수록 체조를 교련과 연결시켜 강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식민 지배 초기의 신체발달, 체조의 경시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의 연관성 강조’ 삭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분과주의 원칙 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보통학교규정에서는 7개의 항목을 교수주의사항²¹⁾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1909년 보통학교령시행규칙의 교수주의사항과 1911년 보통학교

18) 조선총독부 관보 1911년 10월 20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00호 보통학교규칙 제7조.

19) 대한제국 관보 1909년 7월 5일자, 학부령 제6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제7조.

① 도덕에 관련한 사항은 어떤 교과목을 막론하고 항상 유의하여 교수함을 요함
 ② 지식기에는 항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교수하고 반복 연습하여 응용자재(應用自在)하도록 힘쓰기 가함
 ③ 학도의 신체를 완전히 발달하게 함을 꾀하여 어떤 교과목을 막론하고 그 교수는 학도심신발달의 정도에 적합케 함을 요함
 ④ 남녀의 특성 및 그 장래생활에 주의하여 각 적당한 교육을 시행함을 힘쓰기 가함
 ⑤ 각 교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을 물오(勿誤)하고 상호 연락하여 보익(補益)함을 요함

20) 생략되는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논의를 전개하기가 어려움을 밝혀두고자 한다.

21) 조선총독부 관보 1922년 2월 4일자, 조선총독부령 제8호 보통학교규정 제8조.

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과목에서나 항상 주의 깊게 유의해야 한다.
 ②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고 아동의 덕성을 함양하여 순한 인격을 도야하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두터이 하며 동포끼리 화합하는 미풍을 기르도록 한다. 어떤 교과목에서든지 항상 이를 깊이 명심하여 유의하도록 한다.
 ③ 지식기능은 항상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택하여 이를 교수하도록 하며, 반복연습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아동의 신체를 건전하게 발달시키도록 해야 하며, 어떤 교과목에서든지 그 교수는 아동의 심신발달의 정도에 따르도록 한다.
 ⑥ 남녀의 구별은 물론 개인의 특성과 그의 장래생활에 주의하여 각자 적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⑦ 각 교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을 잘못하는 것 없이 서로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규칙의 교수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차이라고 한다면 덕의 함양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두터이 하고 동포끼리 화합하는 미풍을 기르도록 한다”는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기에 1929년 보통학교규정 개정에서는 근로 정신과 능력의 함양이 추가되었다. 직업교육을 강조하려는 교육과정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통학교규정의 교수주의사항²²⁾에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근로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흥업치산의 지조를 공고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교과목에서도 항상 깊이 유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하나 추가하였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며”와 “특히 산업에 관한 사항에 유의하여 이를 가르치고”라는 직업교육 관련 문구가 첨가되었다. 이시기 ‘국민’과 ‘국민’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 접어들면 교수주의사항은 ‘교수유의사항’으로 표현이 바뀐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교육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하여 조선교육령 수준에서 언급될 사항들이 소학교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라던가 “교수용어는 국어로 한다”,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갖추고 황국신민다운 성격을 함양한다”²³⁾는 내용의 문구들이 추가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수주의사항과 비교하면 초등교육 방법이나 일반적 원칙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고, 교육칙어, 국어, 황민화 교육 등 교육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교수유의사항에서 강조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편이 일어났다. 교수유의사항도 대폭 강화되어 국민학교령 제2조에서 전체 14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교수유의사항의 문구를 조정한 것도 있지만, 새롭게 추가된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 7가지이다.

- 2)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모시고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하며, 내선일체, 신애협력(信愛協力)의 미풍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 4) 우리나라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에 대세에 대하여 알도록 하며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 5) 교수, 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고 심신을 일체로 해서 단련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통일적 인격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 7) 의식, 학교행사 등을 중시하며, 이를 교과와 병행하여 일체화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2) 조선총독부 관보 1929년 2월 4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8호 보통학교규정 개정.

23) 조선총독부 관보 1938년 3월 15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 제16조.

- 8) 가정 및 사회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여 아동의 교육에 전력을 다한다.
- 11) 교재를 정선하고 교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과 함께 반복 연습하여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12) 교육에 대해서 아동의 흥미를 환기하고 자수(自修)의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²⁴⁾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교과 합과주의를 택하여 교과를 국민과, 리수와,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교과를 통합하였다. 국민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수업시수도 통합하여 직업과를 제외한 4개의 교과목으로 운영하였다. 합과주의의 원칙은 교수유의사항에도 그대로 드러나 교과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교과 합과 뿐만 아니라, 교과와 의식 및 학교행사를 일체화하고, 나아가 교수와 훈련 그리고 양호를 결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과주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경험 측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경험이 별도의 날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에서 나오는 통합주의 교육과정 원리이다. 그리고 통합주의 원리는 대개 아동의 흥미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중요시하고, 교육과 지역사회 및 직업세계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다. 교수유의사항에서 ‘우리(일본)문화, 동아시아라는 지역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흥미와 자수(自修)의 습관’을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조직에서 통합주의(합과주의) 혹은 분과주의 지향은 사회의 지배원리 혹은 성격과 연관된다²⁵⁾고 한다. 학문영역간, 학과간, 교과간의 구분이나 경계가 엄격할수록 분류(Classification)가 강하게 되고, 학문영역이나 학과, 교과 내의 지식이나 내용 조직의 정도가 짝 짜여질수록 구조화(Framing)가 강한데, 약한 분류와 약한 구조화일수록 통합주의 경향이 강하다. 통합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며,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쉽고,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통제 중심이기보다는 협력적이 된다. 그래서 통합주의 교육과정은 종적위계 질서가 강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주의적인 사회보다는 횡적관계가 중시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와 친화적이다. 반면 교육과 정치 혹은 교육과 경제와의 관계에서 교육담당자들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결정권이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치와 경제의 요구

24)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3월 3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90호 초등학교규정 제2조.

25)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제4판, 교육과학사, 415~416쪽.

에 좌우되기 쉬워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교육과정 조직 및 운영에서 통합주의 지향은 전시체제를 구축하고 황민화교육을 추구하는 당시의 사회 지배 원리나 성격에 견주어 보면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많다. 통합주의 교육과정을 왜 추구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육과정 원리를 정당화 시키는 교육적 담론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교재로 사용하는 책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목적과 교과목,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과 교과 운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법으로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리 오래거나 널리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교육이 도입되고 학교교육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교육과정 법령준거주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제시대 법령준거주의에 입각해 이루어진 교육과정 정책 즉 법령에 규정된 교육과정, 문서상으로 제시되는 교육과정의 체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일제시대 초등 교육과정은 칙령인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령인 보통학교규칙·보통학교규정·소학교규정·국민학교규정, 각과 교수요목이라는 조선총독부훈령으로 제시되었다. 일제 후기로 갈수록 교육과정은 조선총독부령과 훈령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제시되어, 법적 근거의 수준이 하향되고 교육과정 제시체계가 세분화되는 경향이었다. 법적근거의 하향과 제시체계의 세분화는 그 자체로서 식민지기 교육과정 정책의 특징이 되지만 식민 본국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일본 본국과는 달리 식민지조선은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초등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어떤 차이를 두었는가, 차이를 두었다면 왜 어떻게 두었는가의 문제이다. 이 쟁점은 초등 교육연한을 6년으로 동일하게 한 1920년의 조선교육령 개정 및 보통학교규정 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학교명 및 학교체도를 동일하게 한 제3차 조선교육령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쟁점이 된다. 제3차·제4차

조선교육령기의 경우 일본의 소학교령·국민학교령과는 달리 조선총독부령으로 소학교 규정·국민학교규정을 만들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시했고 조선에만 적용되는 교수요목을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의 차이와 제시체계의 세분화를 통제의 용이성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조선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법적근거와 제시 체계만 살펴보았으므로 그 내용의 공통성과 차이를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점은 본 논문의 한계로서 이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일제시대 교과목, 교과순서, 수업시수, 교수주의사항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교과 구성원리는 분과주의에서 합과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다. 교육과정 개편 시기마다 몇몇 교과가 신설되고 수업시수를 확보하였는데 <일본역사>, <지리>, <직업>, <수공>, <습자> 과목이 신설되어 수업시수를 확보하였고, <수신>, <음악>, <체조>, <도화> 교과의 수업시수는 점차 확대되었다. 수업시수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가는 경향이었으나 <조선어>과목은 수업시수가 줄고, 수의과목으로 되었다가 폐지되었다. 교수주의사항은 초등교육 운영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외에도 총량한 국민, 근로 정신과 태도 함양, 교육칙어, 황국신민, 내선일체 등의 내용이 가미되어 점차 정치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교수주의사항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주의적 성격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과목 구성과 순서, 수업시수 배당, 교수주의사항 등에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조와 정책의 변화가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순서, 수업시수 배당, 교수주의사항 등의 교육과정의 변화 실태와 그 특징을 밝혔을 뿐이고 누가 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였는지 그 과정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와 결정권의 소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편수과·편집과 관료, 조선총독의 역할과 본국과의 관계, 일본의 교육과정 개편 동향 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朝鮮總督府 官報』, 『文教の朝鮮』, 『朝鮮の教育研究』
學部(1910), 『普通 教育學』, 韓國政府印刷局.
- 小田省吾(1917),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 朝鮮總督府 學務局.
- 朝鮮初等教育會研究會(1935), 『細日式 普通學校 各科 教授日案 : 第1學年用 細日式
普通學校 各科 教授日案 : 第1學年用』, 朝鮮公民教育會.
- 朝鮮初等教育會研究會(1937), 『(小學校普通學校)改正學校體操教授細目』, 大學社.
- 朝鮮總督府學務局 編(1941), 『國民學校體鍊科教授要項並實施細目』, 朝鮮公民教育會.
- 大野謙一(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 岡九雄(1940), 『朝鮮教育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 渡部學・阿部洋 編(1991),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18~24권, 68권,
龍溪書舍.
- 강명숙(2007).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pp1~24.
- 강명숙(2009).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pp.27-53.
- 권오현(1999), 『朝鮮總督府における歴史教育内容史研究:國民意識形成の論理を中心
に』, 廣島大學 博士學位論文.
-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제4판, 교육과학사.
- 김원중(2007), 『일제강점기의 중등학교 물리교육 내용과 교수법 고찰』, 한국교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한중(2009),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제9호, 한
국역사교육학회, pp295~329.
- 박영숙(2002), 『植民地時代 ‘普通學校國語讀本’의研究』, 久留米大學 博士學位論文.
- 오성철(2000),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 유봉호(1992), 『한국교육과정사연구』, 교학연구사.
- 이승구・박봉배(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혜영 외(1997), 『한국근대 학교 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 교육개발원
- 장신(2004), 「한말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제91호, 역사교육학회, pp1~23.
- 장신(2006), 「조선총독부의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제16호, 역사문제연구소, pp33~68.
- 정재철(1995),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 한용진 외(2010), 『우리나라의 1945년 이전 국가수준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함종규(2003),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조선조 말부터 제7차교육과정까지』, 교육 과학사.
- 李淑子(1985), 『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 ほるぷ出版.
- 佐野通夫(2006), 『日本植民地教育の展開と朝鮮民衆の對應』, 社會評論社.
- 仲新(1949), 『近代教科書の成立』, 日本圖書センタ.
- 西尾達雄(2003),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學校體育政策』, 明石書店.
- 神田 修・山住正己 編(1989), 『史料 日本の教育』, 學陽書房.

[토 론]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

이윤미(홍익대)

○ 발표논문은 식민지 시기 교육과정의 법적 기반과 교육과정 제시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발표자는 식민지시기 관련 법규 조항이나 시수표 등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는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제시체계와 교육과정 구성상의 특징이 교육령 시기별로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다루고 그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몇 가지 논의 사항

- 1)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체계에 대한 연구가 교육과정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한다. 이를 위해 문서 자체에 대한 기술 외에 교육과정 구성원리(교육목표, 교과목편제와 관련한 학문이론적 기초 등)나 교육과정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배경적 논의가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본다.
- 2) 일제시대 교육과정의 특성이 통시적/공시적 비교 관점에서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즉, 전후시기(개화기, 미군정기)와의 관계 속에서 일제시대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일본이나 대만 등의 동시기 교육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던 (“식민지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의 한계 혹은 후속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 3)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체계 및 법적 근거 변화의 특징으로 법적 근거수준의 하향화와 교육과정 제시체계의 세분화(과목별 교수요목 제정)를 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개편을 용이하게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미시적 통제에 기여

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발표자는 “교수요목 제정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8쪽)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제시대 국가교육과정이 지닌 통제의 의도성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중앙집권적 체계(형식)가 구성되는 원리를 통제의 메카니즘과 동일시할 경우 어떤 점이 곤란한가?

- 4) 분과주의에서 합과주의로의 변화(1,2차 교육령시기부터 나타남)를 통합교육과정 혹은 과목간 연계성 강화라는 틀로 일관되게 해석해도 좋은지 의문이다. 제4차교육령 시기에 나타난 변화는 통합교육과정 추진보다는 전시 학교운영과 관련된 수업시수변화(편의성)나 교수/학교행사 일체화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통합주의교육과정원리가 적용된 근거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아동의 흥미, 능동적 학습 등을 주목하는데, “우리문화, 동아시아” 등 지역성의 강조(19쪽)는 오히려 당시 대동아공영권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Bernstein이 교과학문간 경계와 교수/학생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classification과 framing을 기준으로 당시 교과간의 경계와 교사/학생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Bernstein은 이 용어를 가지고 전통교과교육과 진보주의교육으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4차 교육령 시기에 진보주의 교육의 전형적 특징이 교육과정 구성원리로 제시된 점은 사회배경상 모순적으로 보인다.



【주제 발표 2】 세계 교육과정 정보

[발표] 김진숙(KICE)

[토론] 홍원표(연세대)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향방(向方)

김진숙, 김영준, 최정아, 지혜영, 김주현(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서론: 무엇이 교육과정 ‘총론’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8년부터 교육과정 정보 공유를 위한 기초연구 및 웹기반 DB 시스템 구축연구를 수행하였다(김진숙 외 2008, 2009, 2010). 이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www.ncic.re.kr)’에 탑재된 교육과정 정보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이를 포함한 세계 17개국의 국가 및 주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림- I -1]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www.ncic.re.kr)의 초기 화면

국내외 교육과정의 정보를 구성하는 웹사이트 DB는 교육과정 사료(史料)를 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라고 할 수 있으며, 이 DB 구성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과정 정보의 표준화 문제가 해결해야 할 화두로 떠올랐다. 교육과정 정보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나열되거나 서로 뒤엉킨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정보 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 정보의 이러한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이다(김진숙 외, 2009). 문제는 해당 교육과정의 단위(총론, 교과 등)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특히 교육과정 총론의 경우 무엇을 총론으로 볼 것인가가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대별로, 세계적으로는 각국별로 달랐으며, 심지어 ‘총론’이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KICE의 연구진에서는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 사이트 NCIC 구성의 원리로 인벤토리 중심의 정보 구성, 원문 인벤토리와 표준 인벤토리에 의한 교육과정 정보의 표준화라는 원리를 정립하게 되었다(김진숙 외(2009), 35-38).

본고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NCIC에서 인벤토리 체제로 교육과정 정보를 구조화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그리고 세계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무엇이 교육과정 총론인가?”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검토 과정으로 여기며, 표준 인벤토리 ‘총론’ 정보를 추출하게 된 세계 각국의 해당 문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발의 방향은 어떠한지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NCIC의 세계 교육과정에서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등 17개 국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본고에서는 이들 중 항목에 따라 11~13개국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II 교육과정 ‘총론’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과정의 ‘총론’과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

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결과

본 연구자는 전공이 ‘교육과정’이고, 소속 기관에서 비공식 용어로 ‘총론 전공자(일명 총론팀)’에 속하며, 지금까지 참여한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서는 ‘총론’ 개정 연구진에 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최근 교육과정의 고시문 자체에는 ‘총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총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어떤 부분의 일반적 이론을 총괄하여 서술한 해설이나 저작”, 또는 “논문이나 저서의 첫머리에 실는, 그 논문이나 저서의 큰 줄거리”로 비슷한 말은 ‘총설’, 반대말은 ‘각론’이다. 초·중·고등학교법을 포함한 각종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총칙’이나 ‘통칙’ 또한 총론의 비슷한 말로서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을 말하며, 총론의 영어적 표현은 ‘introduction 또는 outline’에 해당된다(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교육과정 ‘총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신세호 등(1981)은 제4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 바 있다.

교육과정 총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적 방향과 강조점을 나타낸 교육과정 구성방향(前文),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 교과 및 특별활동의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제시한 교육과정의 총괄적 부분이다.

위의 정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 고시문 등을 통틀어 거의 유일한 총론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교육 목표, 편제표, 운영 지침이라는 4가지 부분이고, 이를 한마디로 “교육과정의 총괄적 부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4차 교육과정 개발기에 정의된 내용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에서 ‘총론’은 어떻게, 무엇을 지칭하며 변화되어 왔는가로 확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목차 중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변화를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Ⅱ-1>와 같다.

<표-II-1>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체계 변화
(초등학교; 1945~2009)

1차이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1945	1946.09	1954.04	1955.08	1963.02	1969.09	1973.02	1979.03	1981.12	1987.06	1992.09	1997.12	2007.02	2009.12
<법령> *1945.9.29-미군정청법령 제6호 제1조 公立學校의 開學 제2조 私立學校 제3조 種族 和 宗教 제4조敎訓의 用語 제5조課程 제6조敎師 제7조學校建物 *1945.10-학무통첩 제322호 “Explanation of and Directive on Schools” 초등학교 편제표	총론별도로없음,교과교육과정고시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 第一章 總則 第二章 國民學校 第三章 中學校 第五章 高等學校 第五章 師範學校 附 則 別表(一) 國民學校敎育課程時間配當基準表	머리말 一. 본 과정이 나오기까지 二. 본 과정의 기본 태도 三.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	머리말 제 1 부 총론 제 1.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1. 교육과정의 내용 2. 교육과정의 조직 3. 교육과정의 운영 II.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III.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 IV. 국민학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2. 교과 활동 3. 반공·도덕 생활 4. 특별 활동	머리말 제 1 부 총론 제 1.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1. 교육과정의 내용 2. 교육과정의 조직 3. 교육과정의 운영 II.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III.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 IV. 국민학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2. 교과 활동 3. 반공·도덕 생활 4. 특별 활동	제 1 부 총론 제 1.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1. 기본 방침 제 2. 일반 목표 제 2. 국민학교 교육과정 방침 2. 편제와 시간배당 가.교육과정의 편제 나.시간 배당 기준 3. 운영 지침	제 1 부 총론 제 1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제 1. 기본 방침 제 2장. 국민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침 1. 구성 방침 2. 편제와 시간배당 가.교육과정의 편제 나.시간 배당 기준 3. 운영 지침	제 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제 2장 국민학교 교육과정 목표와 편제 가.교육 목표 나.편제와 시간배당 1)편제 2)시간 배당 다.운영 지침 1)계획 2)지도 3)평가 4)기타	제 1 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제 2 장 국민학교 교육과정 목표와 편제 가. 교육 목표 나.편제와 시간 배당 시간 배당 다.운영 지침 1.편제 2.시간 배당 다. 운영 지침 1.계획 2.지도 3.평가 4.기타	제 1 장 교육과정의 성격 제 1 장 교육과정의 성격 1. 교육과정의 운영 2. 교육과정의 구성 3. 편제 4. 시간 배당 5.편성·가.편성 기준 <시·도 교육청> <학 교> 나.운영 지침 <시·도 교육청> <학 교> 다.평가라.기타	교육과정의 성격 제 1 장 교육과정의 성격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II. 학교급별 교육 목표 III.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 제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1.편제 2.시간(단위)배 당 기준 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 기본 방침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4.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의 성격 제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1. 초등학교 2.중학교 3. 고등학교 4. 학교급별 공통사항 III. 학교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출처: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www.ncic.re.kr)

본고에서 위의 <표-Ⅱ-1> 제목에서처럼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사료에서나 외국의 문서에서나 ‘총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예 ‘총론’이라는 부분 명칭조차 사용되지 않으면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이 부분 역시 총론의 범주에서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표-Ⅱ-1>에 제시된 해방 이후 교육과정 문서에서 ‘총론’ 및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변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總論)’은 일부 시기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비공식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교육과정 문서 중 1945년~1954년 1차 이전까지는 지금의 총론에 해당되는 편제표 등의 사항은 미군정청 및 문교부령의 법령으로 존재하였다. 1954년 시간배당기준령에서 ‘총칙’의 용어가, 그리고 1963년 2차 교육과정 문서에서 비로소 ‘총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교육과정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으며, 이후 총론의 체계가 점차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2차부터 3차 교육과정까지는 ‘총론’의 용어가 사용되면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그 양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4차 이후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분량은 많아졌으나, ‘총론’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교과 중 여러 과목을 갖고 있는 전문 교과 중 여러번, 이를테면 ‘세무회계’의 교육내용에서 “나. 부가가치세법 (1) 총론…”으로 언급될 뿐이다(www.ncic.re.kr).

둘째,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비공식적으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포함된 내용 역시 변화되어 왔다. 1954년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에서는 총칙과 각 학교별 교육과정이 분리되었으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령 전체가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1차 교육과정에서는 ‘머리말’과 ‘본 과정이 나오기까지’, ‘본 과정의 기본 태도’,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 항목’이 총론에 해당된다. 1차 교육과정의 머리말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 기본 태도, 운용상의 주의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2차와 3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서의 제1부가 총론으로 구성되었고, 4차 교육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5차에서는 전체 총론, 제2장에서 각 학교급당 총론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교육과정의 성격, 편성과 운영, 방향 등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양한 용어로 서술되었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편성’이 추가되고, 시도 교육청 등 지역의 역할과 지원, 교육과정 평가 등이 강조되면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부피는 늘어났다.

위에서의 사적(史的) 고찰에 비추어, 본 연구진에서는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표준화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즉 표준

인벤토리에 따른 교육과정 정보 분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하게 되었다.

2. NCIC의 표준 인벤토리에 의한 교육과정 정보 표준화

‘인벤토리(inventory)’란 교육과정 정보의 구조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도(地圖) 역할을 하는 동시에, 특정 정보가 속한 일종의 주소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벤토리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정보의 구조를 먼저 세우고 해당 인벤토리에 적합한 정보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정보는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인벤토리는 일종의 목록과 같은 형태를 띠는 동시에 그 체계 자체가 위계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정보의 목차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표-II-1> 원문, 표준 인벤토리에 의한 교육과정 정보 구조(IA)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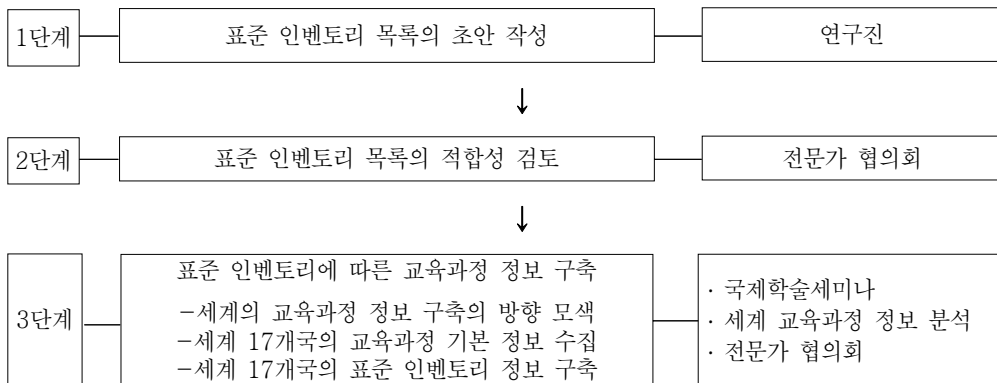
	특징	구성의 예
원문 인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문서의 원목차 - 시기별, 지역별(세계 각국별) 교육과정의 구성이 다름에 따른 다양한 목차 - 교육과정 간 항목간 비교 불가능 	<p><7차 교육과정> 교육 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II. 학교 급별 교육 목표 III.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등</p>
표준 인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교육과정 정보의 체계 - 시공간적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단일 목차, 손쉬운 비교 - 교육과정의 구성 여부에 따라 내용이 없는 항목 존재 	<p>5.6. 중등학교 교육 시간 5.6.1. 중등학교의 학사력 5.6.2. 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5.6.3. 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주수 5.6.4. 중등학교의 주당 수업시수 5.6.5. 중등학교의 하루 수업시수 5.7. 중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5.7.1. 중학교 편제표 5.7.2. 중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5.7.2.1. 필수 교과목과 시수</p>

원문 인벤토리는 교육과정 정보를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 즉 해당 교육과정 문서의 서지 정보를 집적해 놓기 위한 체제이다.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 교육과정 정보의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살려 원 목차 및 원 내용의 체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동시에, 교육과정 정보 DB에서는 유연하고 누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

이브로 기능할 수 있다.

표준 인벤토리는 새롭게 체계화된 인벤토리 목록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정보를 나름대로 표준화하여 제시하고자 한 방식이다. 즉 특정한 인벤토리 목록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교육과정 정보의 체계를 설계하고 해당 틀에 입각하여 관련 정보를 채워 넣는 방식을 취하면, 일관된 기준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결과 일관된 기준에 의해 교육과정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인벤토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의미한 교육과정 정보가 누락될 수 있고, 특정 국가나 시기, 교과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정보의 특성이 포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표준 인벤토리’를 구성하게 된 절차는 잉카(INCA; www.inca.org.uk) 및 유리디스(EURYDICE; www.eurydice.org) 등 국제 교육비교 웹사이트 및 국가 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와 같은 정보 공유 사이트를 참조하여 표준 인벤토리 목록의 초안을 만든 후 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림-Ⅱ-1] 표준화된 교육과정 정보 구축 절차 및 방법(김진숙 외, 2009)

세계의 교육과정 정보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를 최상위 인벤토리로 한 표준 인벤토리 체계를 중심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준 인벤토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선정, 체계화된 것이다.

첫째, 각급 학교 및 교과별로 선행 연구 및 선행 인터넷 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유의미한 항목들을 1차 추출하였으며, 해당 항목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

교, 특수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검토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유목화, 항목화하였다.

둘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정보와 관련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쟁점(issue) 사항을 추가적으로 목록화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권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의 영어 교육 도입 시기와 연간 주당 수업시수 등과 같은 정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 목차 수준에서 명기되거나 명시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는 내용이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정보에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관심도가 높은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은 별도로 선정하여 ‘표준 인벤토리’ 목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1차 구축된 ‘표준 인벤토리’ 목록은 정보의 유형과 복잡성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4~5단계 이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정보의 단계는 국가 구분의 0단계, 해당 국가의 ‘1, 2, 3 …’의 정수 단계 1단계, ‘1.1., 2.1 …’의 소수 첫째 자리 2단계, ‘1.11, 1.12. …’의 소수 둘째 자리 3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1단계는 교육과정 정보를 구분하는 학교별 단계이다. 여기서는 0단계에서 구분한 국가의 학교별 교육과정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교육기관’으로 구분하며, 이 구분의 공통된 내용으로서 ‘1. 국가 정보’, ‘2. 교육 제도’의 정보가 포함된다. 2, 3, 4, 5 단계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2단계로 끝나는 정보도 있고, 3, 4, 5단계로 분화해서 구체화하는 정보도 있다.

이처럼 트리 구조의 형태로 구축된 표준 인벤토리 목록은 ‘1. 국가 정보, 2. 교육제도, 3. 유치원 교육과정, 4. 초등학교 교육과정, 5. 중등학교 교육과정, 6.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표준 인벤토리에는 ‘1. 국가 정보’, ‘2. 교육제도’, 또는 ‘4.2.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한 쟁점 사항, 4.3. 초등학교 교육 관련 기본 법령’과 같이 교육과정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정보 및 ‘5.5.2 중등학교 학생수 및 취학률’과 같이 교육통계 기본 자료가 포함된다. 이 세부 항목들 중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본고에서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2> NCIC의 표준 인벤토리 중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

표준 인벤토리 항목
3. 유치원 교육과정 (kindergarten curriculum)
3.1.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징
3.4. 입학 연령 및 대상 연령
3.4.1. 입학 연령
3.4.2. 유치원 교육 대상 연령
3.4.3. 학년 구성
3.4.4.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
3.6. 유치원 교육 시간
3.6.1. 유치원의 학사력
3.6.2.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
3.6.3. 유치원의 연간 수업주수
3.6.4. 유치원의 주당 수업시수
3.6.5. 유치원의 하루 수업시수
3.7.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문서체계
3.8.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표
3.9.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3.10.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
3.11.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3.11.1. 건강
3.11.2. 사회
3.11.3. 표현
3.11.4. 언어
3.11.5. 탐구
3.13. 교수 방법 및 자료
3.13.1. 교과서의 종류
3.13.2. 교수 매체
3.14. 유아 평가
4. 초등학교 교육과정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4.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4.4. 입학 및 대상 연령
4.4.1. 입학 연령
4.4.2. 초등학교 교육 대상 연령
4.4.3. 초등학교 학년 구성
4.6. 초등학교 교육 시간
4.6.1. 초등학교의 학사력
4.6.2.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4.6.3.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주수
4.6.4. 초등학교의 주당 수업시수
4.6.5. 초등학교의 하루 수업시수
4.7.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4.7.1. 초등학교 편제표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향방(向方)

표준 인벤토리 항목
4.7.2. 초등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4.7.2.1. 필수 교과목과 시수
4.7.2.1.1. 필수 교과목의 종류
4.7.2.1.2. 필수 교과목별 시수
4.7.2.2. 초등학교의 선택 교과목과 시수
4.8. 국가 수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4.8.1 초등학교 총론의 문서체계
4.8.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4.8.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4.10. 국가 수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외 활동
4.10.1. 초등학교 교과 외 활동의 종류
4.10.2. 초등학교 교과 외 활동의 내용
4.12. 교수 방법 및 자료
4.12.1. 교과서의 종류
4.12.2. 교수 매체
4.13. 초등학교 학생 평가
4.13.1. 학교 수준의 평가
4.13.2. 국가 수준의 평가
4.13.2.1. 평가 명칭과 일정
4.13.2.2. 평가 대상 과목
4.13.2.3. 평가 결과 처리
5. 중등학교 교육과정(Secondary school curriculum)
5.1.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5.4. 입학 및 대상 연령
5.4.1. 입학 연령
5.4.2. 중등학교 교육 대상 연령
5.4.2.1. 중학교 교육 대상 연령
5.4.2.2. 고등학교 교육 대상 연령
5.4.3. 중등학교 학년 구성
5.4.3.1. 중학교 학년 구성
5.4.3.2. 고등학교 학년 구성
5.6. 중등학교 교육 시간
5.6.1. 중등학교의 학사력
5.6.2. 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5.6.3. 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주수
5.6.4. 중등학교의 주당 수업시수
5.6.5. 중등학교의 하루 수업시수
5.7. 중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5.7.1. 중학교 편제표
5.7.2. 중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5.7.2.1. 필수 교과목과 시수
5.7.2.1.1. 필수 교과목의 종류
5.7.2.1.2. 필수 교과목별 시수

표준 인벤토리 항목
5.7.2.2. 중학교의 선택 교과목과 시수
5.8.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5.8.1. 일반계 고등학교 편제표
5.8.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5.8.2.1. 필수 교과목과 시수
5.8.2.1.1. 필수 교과목의 종류
5.8.2.1.2. 필수 교과목별 시수
5.8.2.2.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 교과목과 시수
5.8.2.2.1. 선택 교과목의 종류
5.8.2.2.2. 선택 교과목별 시수
5.9.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5.9.1. 전문계 고등학교 편제표
5.9.2.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5.9.2.1. 필수 교과목과 시수
5.9.2.1.1. 필수 교과목의 종류
5.9.2.1.2. 필수 교과목별 시수
5.9.2.2. 전문계 고등학교의 선택 교과목과 시수
5.10. 국가 수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5.10.1 국가 수준 중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5.10.1.1 중학교 교육과정의 문서체계
5.10.1.2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5.10.1.3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5.10.2 국가 수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5.10.2.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서체계
5.10.2.2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5.10.2.3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5.10.3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5.10.3.1 전문계 고등학교 문서체계
5.10.3.2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5.10.3.3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5.12. 국가 수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외 활동
5.12.1. 국가 수준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외 활동
5.12.2. 국가 수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외 활동
5.12.3. 국가 수준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외 활동
5.14. 교수 방법 및 자료
5.14.1. 교과서의 종류
5.14.2. 교수 매체
5.15. 중등학교 학생 평가
5.15.1. 학교 수준의 평가
5.15.2. 국가 수준의 평가
5.15.2.1. 평가 명칭과 일정
5.15.2.2. 평가 대상 과목
5.15.2.3. 평가 결과 처리

III 세계 각국 교육과정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비교 결과

본고에서는 NCIC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인 우리나라 포함 17개국 교육과정 정보를 위에서 제시한 표준 인벤토리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론’ 문서 존재의 경향성

‘총론’ 문서가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12개국의 유-초-중등학교 총론에 대해 각 국가별 총론 문서 유무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III-1>와 같다.

<표-III-1> 세계 각국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존재 유무

국가 학교급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미국 (캘리포니아)	스웨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온타리오)	프랑스	핀란드	홍콩	합계
유치원	×	○	○	○	○	○	○	○	○	○	○	○	11
초·중· 고등학교	○	○	○	×	○	○	○	○	×	○	○	○	10
고등학교	○	○	○	×	○	○	○	○	×	×	○	○	9

* 네덜란드, 독일(베를린), 싱가포르, 인도, 호주 국가의 경우는 국가 교육과정 정보 센터(www.ncic.re.kr)에서 정리 작업 중으로 <표>에서 생략함.

유-초-중등학교 학교급별로 총론 문서 유무를 분석한 결과 유-초-중등학교의 모든 학교급별로 총론 문서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만, 대한민국, 스웨덴, 영국, 일본, 중국, 핀란드, 홍콩으로 총 8개 국가이다.

학교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12개 국가 중 뉴질랜드를 제외한 11개 국가에서 유치원 총론 문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유치원은 총론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 사항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총 12개 국가 중

미국(캘리포니아), 캐나다(온타리오)를 제외한 10개 국가에서 총론 문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또한 이와 동일하다.

총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캘리포니아), 캐나다(온타리오), 프랑스 중등학교는 총론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교육목표와 같은 총론적인 사항을 보고서 등에서 기술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경자, 2008).

2.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존재와 경향

가. ‘총론’ 및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존재와 명칭

‘총론’ 문서의 별도 존재와 관계없이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교육법, 교과 교육과정 문서 속에 산재한다. 세계 13개국의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문서 및 총론 부분의 명칭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III-2>와 같다.

<표-III-2> 세계 각국 교육과정 총론 문서 및 총론 부분의 명칭

학교급 국가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뉴질랜드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The New Zealand Curriculum	The New Zealand Curriculum
대만	幼稚園課程標準 유치원과정표준	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總綱 국민중소학구년일관과정강요총강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總綱 보통고급중학과정강요총강
대한민국	2007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9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미국 (캘리포니아)	1. California Preschool Curriculum Framework Volume 1* 2. Prekindergarten Learning Guidelines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스웨덴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98	Syllabuses for the compulsory school	Curriculum for the non-compulsory school system lpf94
싱가포르	A Framework For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Singapore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영국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초등학교> New primary curriculum handbook	<중학교, 고등학교> The National Curriculum statutory requirements for key stages 3 and 4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향방(方向)

학교급 국가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일본	幼稚園教育要領案(2008) 유치원교육요령안	小學校學習指導要領案(2008) 소학교학습지도요령안 中學校學習指導要領案(2008) 중학교학습지도요령안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2009)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안
중국	幼稚園教育指導綱要(試行) 유아원교육지도강요(시행)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 義務教育課程設置實驗方案 의무교육과정설치실험방안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보통고중과정방안(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The Kindergarten Program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프랑스	QU'APPREND-ON À L'ÉCOLE ÉLÉMENTAIRE ?	초등: QU'APPREND-ON À L'ÉCOLE ÉLÉMENTAIRE ? * 중학교는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사항으로 제시
핀란드	ESIOPE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ET 2000	PERUSOPE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ET 2004	LUKION OPETUSSUUNNITELMAN PERUSTEET 2003 Nuorille tarkoitettun lukiokoulu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et
홍콩	學前教育課程指引 학전교육과정지인	基礎教育課程指引 기초교육과정지인	高中課程指引 고중과정지인

총 13개 국가 중 뉴질랜드, 미국(캘리포니아),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핀란드, 프랑스의 경우 총론에 대한 문서의 명칭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대만, 중국, 일본, 홍콩, 대한민국의 경우는 요령(要領), 지인(指引), 총강(總綱), 총론 등으로 문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제시되는 문서의 경향성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은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교육법 및 교육부 웹사이트 등 4군데에서 제시되고 있다.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제시되는 문서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NCIC의 표준인벤토리 항목 중 일부가 각국의 문서에서 제시되는 현황을 구분하여 종합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III-3> NCIC 표준 인벤토리 항목 중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제시되는 문서 사례*

표준 인벤토리 항목	총론	교과	교육법**	교육부 웹사이트**
5. 중등학교 교육과정 (Secondary school curriculum)				
<중략>				
5.6. 중등학교 교육 시간				
5.6.1. 중등학교의 학사력	.	.	.	뉴질랜드, 대만, 미국, 중국, 캐나다, 홍콩,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5.6.2. 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대만, 중국, 홍콩, 스웨덴	프랑스	미국, 핀란드, 일본	캐나다
5.6.3. 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주수	대만, 일본, 중국, 홍콩	.	.	캐나다
5.6.4. 중등학교의 주당 수업시수	대만, 중국, 홍콩	.	일본	
5.6.5. 중등학교의 하루 수업시수	홍콩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중략>				
5.8.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5.8.1. 일반계 고등학교 편제표	대만, 중국, 홍콩, 스웨덴	프랑스	미국,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5.8.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5.8.2.1. 필수 교과목과 시수				
5.8.2.1.1. 필수 교과목의 종류	대만, 중국, 홍콩,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일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5.8.2.1.2. 필수 교과목별 시수	대만, 일본, 중국, 홍콩,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일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중략>				
5.10.2 국가 수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5.10.2.1 일반계 고등학교 총론의 문서체계	뉴질랜드, 대만, 영국, 일본, 중국, 홍콩, 스웨덴, 핀란드	.	.	.
5.10.2.2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대만, 영국, 일본, 중국, 홍콩, 스웨덴,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5.10.2.3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대만,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	.
<중략>				
5.14. 교수 방법 및 자료				
5.14.1. 교과서의 종류	대만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5.14.2. 교수 매체	영국, 중국, 홍콩	미국	.	뉴질랜드, 대만, 미국, 캐나다
5.15. 중등학교 학생 평가	-	-	-	-
5.15.1. 학교 수준의 평가	대만, 중국, 홍콩	미국, 캐나다	.	영국
5.15.2. 국가 수준의 평가				
5.15.2.1. 평가 명칭과 일정	.	.	.	뉴질랜드, 대만,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홍콩
5.15.2.2. 평가 대상 과목	.	.	.	뉴질랜드, 대만,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홍콩
5.15.2.3. 평가 결과 처리	.	.	.	뉴질랜드, 대만,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홍콩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캐나다는 온타리오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교육부 웹사이트에 제시된 사항들은 교육법 등 법령에 기초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문서 총론과 교과, 교육법, 교육부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5.4.2. 중등학교 교육대상 연령> 내용을 총론에서 제시한 국가는 일본이며, 뉴질랜드, 대만, 중국, 캐나다는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제시한다. 미국은 교육법에서 관련 사항을 제시한다. 중·고등학교의 학년 구성은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제시한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필수, 선택 교과목과 시수’ 제시에서 대만, 중국, 홍콩,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는 관련 내용을 총론에서 편제표와 함께 제시한다. 영국은 교과목의 종류와 시수를 시험 과목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미국, 핀란드, 일본은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시수를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한 과목은 일정한 기간 동안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편성·운영의 특징’은 총론, 각론(교과) 교육과정 문서가 있는 경우 각각 해당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총론이 존재하지 않고 각론(교과) 교육과정 문서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의 목표는 해당 교과목 이수를 통한 교과교육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교육과정 문서 이외에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다. ‘평가’는 국가 수준의 평가 명칭과 일정, 과목과 결과 처리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교육부 웹사이트의 ‘평가’ 메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요컨대, 총론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그 총론에 담고 있는 사항들은 다기하며, NCIC의 표준인벤토리 항목으로 구분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사항들은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총론’ 및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담은 내용

‘총론’을 갖고 있거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교과 공통으로 제시하는 국가들, 즉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총론이나 교과 등 교육과정 문서로 제시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담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존재 양상 및 그에 따른 목차 체계가 다양하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총 13개 국가의 교육과정 문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 문서가 존재하는 양상이 국가별로 다르고, 그에 따른 문서의 목차 체계 또한 다양하다. 우선 총론 문서의 존재 양상에 따라 12개 국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총론’이라는 별도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둘째, 총론과 교과가 하나의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 셋째, 교과 문서에 총론의 내용이 공통 사항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총론 문서의 존재 형태에 따른 세 가지 유형

(가) ‘총론’이라는 별도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 중국, 홍콩

분석 대상 13개 국가 중 중국어권에 해당하는 대만, 중국, 홍콩의 경우 별도의 총론 문서가 존재한다. 총론 문서의 목차 체계도 국가별, 학교급 별로 ‘목표-성격-내용-방법-평가’라는 유사한 전개 방식을 보인다.

<표-III-4> 중국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목차 체계

국가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중국	초·중학교	<유아원 교육과정> 제1부분 총칙 제2부분 교육내용과 요구 1. 건강 (1) 목표 (2) 내용과 요구 (3) 지도요점 2. 언어 (1) 목표 (2) 내용과 요구 (3) 지도요점 3. 사회 (1) 목표 (2) 내용과 요구 (3) 지도요점 4. 과학 (1) 목표	<기초교육과정> 1. 교육과정 개혁의 목표 2. 교육과정 구조 3. 교육과정 표준 4. 교수 학습 과정 5. 교재 개발과 관리 6. 교육과정 평가 7. 교육과정 관리 8. 교사 양성과 훈련 9. 교육과정 개혁의 조직과 실시 <의무교육설치실험방안> 1. 양성 목표 2. 교육과정 설치의 원칙 1) 균형잡힌 교육과정 2) 교육과정의 종합성 강조 3) 교육과정의 선택성 강조	<보통고등학교교육과정> I.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배양 목표 II. 교육과정 구조 1. 교육과정 구조 1) 학습 영역 2) 과목 3) 이수 단위 2. 교육과정 설치 및 그 설명 III. 교육과정 내용 IV. 교육과정 실시와 평가
	고등학교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2) 내용과 요구 (3) 지도요점 5. 예술 (1) 목표 (2) 내용과 요구 (3) 지도요점 제3부분 조직과 실시 제4부분 교육평가	3. 교육과정 설치 4. 의무교육과정 설치에 관한 설명	

위의 <표-III-4>에 제시된 중국의 목차 체계를 살펴보면,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목차 체계는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항목을 통해 학습 영역 및 영역에 대한 시간 배당을 다룬다. 또한 ‘교수 학습 과정’, ‘교재 개발과 관리’, ‘교육과정 실시’ 등의 항목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국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에 제시된 ‘방법’ 및 ‘평가’ 부분을 각 교과에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루는 특징을 보인다.

<표-III-5> 홍콩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목차 체계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홍콩	<취학전교육과정> ●머리말 ●제1장 서문 1.1 미취학 아동 교육의 위치 1.2 미취학 아동 교육의 핵심 가치 1.3 지도 목적 1.4 미취학 아동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1.5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과 전략 ●제2장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2.1 이장의 목적 2.2 교육과정의 목적	<기초교육과정> ●들어가는 말 1. 교육과정 개혁 개요 - 장점을 다시 생각하고, 발휘한다. 2. 학교 전체 교육과정 계획 - 학습취지의 관철과 학교교육과정 개혁 단기 목표 3. 네 가지 중요 사항으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배운다. -3A 도덕교육 및 국민의식 교육 -3B 독서를 통한 학습 -3C 테마 연구 학습 -3D 정보과학기술을 통한 상호 학습 4. 효과적인 학습교육 전략 - 실천을 통한 학습	<고중교육과정> ●들어가는 말 ●제1부분: 학생교육과정 -제1권 새로운 학제의 실행을 위한 학생교육과정-전인적 개발·평생학습 ●제2부분: 교육과정계획, 교수법 및 평가 -제2권 학교전체교육과정계획-교육과정의 균형과 다양한 선택 -제3권 효과적인 학습과 교육-지속적으로 변하는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2.3 유아발달의 목표 2.4 학습의 범위 2.5 학습 범위의 학습 목적과 교육 원칙 •제3장 교육과정 구성하기 3.1 자신의 환경 검토하기 3.2 서비스의 대상 인식 3.3 교육과정 설계 3.4 교육과정 평가와 조정 시스템 제정 •제4장 학습과 교육 4.1 학습과 교육의 중요 요소 4.2 학습과 교육의 방향 4.3 특수상황과 학습 진도 차이 고려 4.4 교육자원의 충분한 이용 •제5장 평가 5.1 평가의 목적 5.2 평가 진행의 원칙 5.3 평가의 범위 5.4 평가의 양식 5.5 아동의 학습 진도를 기록하고 평가하라 •제6장 입학적응하기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연결 6.1 입학적응하기 6.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결 •제7장 가정과 학교의 협력 7.1 가정과 학교의 협력 모델 7.2 진행 원칙 7.3 참고자료 •범례 •부록	5. 학교 평가 전략 - 평가 방식의 전환 6. 참여 학습 - 온 몸으로 체험하고, 풍부하게 학습한다. 7. 높은 질의 교육자원과 학교 도서관의 발전 -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8. 효과적인 가정교육 - 학습을 견고히 하고, 이해를 도우며, 지식을 형성한다. 9. 각 교육단계 간의 연결 - 학생의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9A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결 - 9B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결 및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의 진로 선택의 전략 10. 전공 발전 및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발전 - 개혁의 원동력을 지속, 강화한다. 11. 다방면의 참여 -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협력 •용어 해설	지식세계 중에서 학습 -제4권 평가-교육과정, 교수법 및 평가의 순환 고리 중 빠질 수 없는 부분 -제5A권 기타학습경험-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제5B권 학습학습개관-뚜렷한 전인적 개발 -제6권 우수한 학습과 교육 리소스-효과적인 학습 촉진 -제7권 학생의 다양성 고려-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우수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한다. •제3부분: 중·고등학교의 연결 -제8권 중3과 중4 및 전문교육과의 연결-균등한 기회, 성공을 향한 걸음 -제9권 학생의 진학 및 취업 지도-미래에 대한 탐색 •제4부분: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 구성 -제10권 전공 개발 및 학습 문화-실천하는 군중 구성 -제11권 변혁관리-여러 사람이 지혜와 힘을 모으다. •용어해설

홍콩의 경우도 중국의 총론 문서 체계와 거의 유사한 전개 방식을 보인다. 하지만 위의 <표-III-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에 비해 총론 문서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내용이 자세하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목표-성격-내용-방법-평가’의 전개 방식을 보이며, 추가적으로 ‘각 교육 단계 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전의 교육 단계, 혹은 이후의 교육 단계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총론과 교과가 하나의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 - 뉴질랜드, 일본

분석 대상 12개 국가 중 뉴질랜드와 일본은 총론과 교과가 하나의 합본 형태로 존재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문서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각 학교급별로 하나의 합본이 존재한다.

<표-III-6> 뉴질랜드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

학교급 국가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뉴질랜드	<유치원(Kindergarten)>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8년 초등학교(Full Primary School)> 머리말 목적 및 범위 개요 비전 원칙 가치 핵심 역량 공식 언어 학습 분야 영어 예술 보건 및 체육 교육 학습 언어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 과학 기술 효율적인 교육 학교 교육과정 : 설계 및 검토 주요 고려 사항 뉴질랜드 교과 과정과 학교 교과 과정의 관계 교과 과정과 학교 교과 과정	<4년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머리말 목적 및 범위 개요 비전 원칙 가치 핵심 역량 공식 언어 학습 분야 영어 예술 보건 및 체육 교육 학습 언어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 과학 기술 효율적인 교육 학교 교육과정 : 설계 및 검토 주요 고려 사항 뉴질랜드 교과 과정과 학교 교과 과정의 관계 교과 과정과 학교 교과 과정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원칙 가치, 핵심 역량, 그리고 교육 분야 가치 핵심 역량 학습 분야 성취 목표 평가 학습경로 교육 법령 및 교육과정 이사회(재단)의 요구사항 학년 교육과정 레벨 수준의 따른 성취도 목표의 차트 용어 및 색인	원칙 가치, 핵심 역량, 그리고 교육 분야 가치 핵심 역량 학습 분야 성취 목표 평가 학습경로 교육 법령 및 교육과정 이사회(재단)의 요구사항 학년 교육과정 레벨 수준의 따른 성취도 목표의 차트 용어 및 색인

위의 <표-III-6>에 제시된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를 살펴보면, ‘머리말’, ‘목적’, ‘개요’, ‘비전’, ‘원칙’과 같이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도입부에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목표 및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반부에 ‘영어, 예술, 체육’과 같은 학습 영역을 소개하고, 각 교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하나의 문서 안에서 총론 및 교과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과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안에는 앞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유사한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III-7> 일본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유치원(幼稚園)>	<소학교(小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일본	교육기본법 제1장 교육의 목적과 이념 제2장 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 제3장 교육행정 제4장 법령의 제정 학교교육법(초)	교육기본법 제1장 교육의 목적과 이념 제2장 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 제3장 교육행정 제4장 법령의 제정 학교교육법(초) 제2장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제1장 교육의 목적과 이념 제2장 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 제3장 교육행정 제4장 법령의 제정 학교교육법(초) 제4장 소학교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향방(方向)

국가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제1장 유치원 유치원교육요령안 목차 제1장 총칙 제1 유치원 교육의 기본 제2 교육과정 편성 제3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시간 종료 후 등에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 제2장 목적 및 내용 건강 1 목적 2 내용 3 내용의 취급 인간관계 1 목적 2 내용 3 내용의 취급 환경 1 목적 2 내용 3 내용의 취급 언어 1 목적 2 내용 3 내용의 취급 표현 1 목적 2 내용 3 내용의 취급 제3장 지도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시간의 종료 후 등에 수행하는 교육활동 등의 유의사항 제1 지도계획의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1 일반적인 고려사항 2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	제4장 소학교 초등학교학습지도요령안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각 교과 제1절 국어 제1 목표 제2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 [1학년과 2학년] 1 목표 2 내용 [3학년과 4학년] 1 목표 2 내용 [5학년과 6학년] 1 목표 2 내용 제3 지도 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 1 목표 2 내용 -이하 중략- <중학교(中學校)> 교육기본법 제1장 교육의 목적과 이념 제2장 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 제3장 교육행정 제4장 법령의 제정 학교교육법(초) 제1장 의무교육 제4장 소학교 제5장 중학교 중학교학습지도요령안 제1장 총칙 제1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 방침 제2 내용 등의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제6장 고등학교 제8장 특별지원교육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초) 제4장 소학교 제2절 교육과정 제6장 고등학교 제1절 시설, 편제, 학과 및 교육과정 제2절 입학, 퇴학, 전학, 유학, 휴학 및 졸업 등 제3절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안 목차 제1장 총칙 제1관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 방침 제2관 과목 및 단위수 등 제3관 교과 과목의 이수 등 제4관 교과 과목 종합적인 학습 시간과 특별활동 수업시수 등 제5관 교육과정 편성 실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6관 단위 이수 및 졸업의 인정 제7관 통신제 과정의 교육과정 특례 제2장 각 학과에 공통되는 각 교과 제1절 국어 제1관 목표 제2관 각 과목 제1 국어 종합 1 목표 2 내용 3 내용의 취급

국가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제2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시간의 종료 후 등에 수행하는 교육활동 등의 유의사항	제3 수업시수 등 취급 제4 지도 계획의 작성 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2장 각 교과 제1절 국어 [1학년] 1 목표 2 내용 [2학년] 1 목표 2 내용 [3학년] 1 목표 2 내용 제3 지도 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 -이하 중략-	-이하 중략- 제3관 각 과목에 걸친 지도 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 -이하 중략- 제4장 종합적인 학습 시간 제1관 목표 제2관 각 학교별 목표 및 내용 제3관 지도계획의 작성과 내용의 취급 제5장 특별활동 -위와 동일한 항목- 부칙 중등학교관계법령 학교교육법 제 7장 중등교육 학교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 5장 중학교 제 6장 고등학교 제 7장 중등교육학교·병설형 중학교·병설형 고등학교

일본의 경우, 각 학교급별로 총 4개의 총론·교과 합본 문서가 존재한다. 위의 <표-I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법-총칙-교과’라는 일관된 전개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소위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총칙’이라는 항목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문서 안에서도 총론과 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과안에서 교과에 해당하는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다) 교과 문서에 총론의 내용이 공통 사항으로 존재하는 경우 - 캐나다(온타리오), 프랑스

분석 대상 12개 국가 중 캐나다(온타리오)와 프랑스의 경우 교과 문서 안에 총론의 내용이 공통 사항으로 존재한다. 즉,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 안에 교육과정 전체의 목표 및 시간 배당 등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III-8> 캐나다(온타리오)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

학교급 국가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캐나다 (온타리오)	<p><유치원(Kindergarten)></p> <p>서론 유치원의 중요성 학습공동체 구축 학습자로서의 어린이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 교장의 역할 커뮤니티 파트너의 역할 학습 프로그램 학습 기대수준 평정, 평가 및 보고 평정 및 평가 기본원리 평정 및 평가방법 교수/학습방법 탐구를 통한 학습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 탐구학습 읽기, 쓰기 발달 능력 수리 능력 발달 교육과정 계획 시 고려사항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발달 고려사항 학습 환경 영어학습자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 반편견 교육 정보기술의 역할 보건 및 안전 학습 영역(Learning Expectations) 개인적 사회적 발달 언어 수학 과학 및 과학기술 건강과 신체활동 예술</p>	<p>※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 사항으로 제시함.</p> <p><교과의 문서 체계 (모국어)></p> <p>-중등학교 언어(Language) (1-8학년)-</p> <p>서론 문해력, 언어, 언어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기 본 원리 언어 프로그램의 역할과 책임</p> <p>언어 교육과정에서의 프로그램 교육과정 기대수준 언어 교육과정의 스트랜드</p> <p>학생 성취의 평정과 평가 기본적인 고려 영어 성취 차트 학생 성취 평가 및 기록 검증된 학습 기술에 대한 보고</p> <p>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고려 사항 지도상의 접근방법 Cross-Curricular와 통합 학습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을 위한 언어 프로그램 계획 영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프 로그램 계획 반편견 교육 수리/ 탐구 능력 언어 프로그램에서의 학교 도서 관의 역할 언어 교육에서의 기술의 역할 진로교육(guidance)과 언어교육 언어교육에서의 보건과 안전</p> <p>1-3학년 개관</p>	<p>※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육부 사이트 및 교과 공통 사항으로 제시함.</p> <p><교과의 문서 체계 (모국어)></p> <p>-중등학교 모국어 (English) (9-10학년)-</p> <p>서론 21세기를 위한 중등학교 문해력, 언어, 영어 교육과정의 중요성 영어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기본 원리 영어 프로그램의 역할과 책임</p> <p>영어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관 교육과정 기대수준 영어 교육과정의 스트랜드</p> <p>학생 성취의 평정과 평가 기본적인 고려 영어 성취 차트 학생 성취 평가 및 기록 검증된 학습 기술에 대한 보고</p> <p>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고려 사항 교육부 관련자료 지도상의 접근방법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 생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계획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고려 반편견 교육 문해력, 수학적 문해력, 탐구 능력 영어 프로그램에서의 학교 도서 관의 역할 영어 프로그램에서의 기술의 역할 온타리오 기능 허가증 (Skills Passport)과 본질적 기능 직업 교육 협동 교육, 다른 형태의 경험학습</p>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용어집	1학년 2학년 3학년 4-6학년 개관 4학년 5학년 6학년 7-8학년 개관 7학년 8학년 용어집	소로(Pathways) 프로그램과 특별 주요 고도 기능(SHEM=Specialist High-Skills Major) 프로그램 계획 영어 프로그램에서의 건강과 안전 의무 과정들 영어 9학년 아카데미 영어 9학년 응용 영어 10학년 아카데미 영어 10학년 응용 선택 과정들 문해력:읽기와 쓰기, 10학년, 개방 (Open) 용어집

위의 <표-III-8>에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는 캐나다(온타리오)의 ‘모국어’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를 제시하였다. 캐나다(온타리오)는 별도의 총론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교과 교육과정 문서 안에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공통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론에 제시된 ‘언어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기본 원리’, ‘언어 교육과정의 역할과 책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습 성취의 평정과 평가’,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고려 사항’ 등의 항목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의 ‘방법’ 및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총론에 해당하는 공통 사항을 모두 제시한 후 교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년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표-III-9> 프랑스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

국가 \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프랑스	<유치원 애플 마페르넬> 총론 언어습득하기 의사소통하기, 표현하기 이해하기 프랑스어사용에 있어서 점차적 발전하기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과의 문서 체계 (모국어)> -중학교 프랑스어- □ 서문 - 원리와 목차 I - 언어 학습 : 문법, 철자법, 어휘	※ 총론을 갖고 있지 않음 <교과의 문서 체계 (모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 프로그램 서문: 고등학교 프랑스어 I - 최종목표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항방(方向)

국가	학교급	유치원	초·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쓰기 발견하기 1 - 쓰기에 익숙해지기 쓰기매체 발견하기 텍스트 쓰기에 기여하기 2 - 읽기와 쓰기 배우기 말소리 구분하기 알파벳원칙에 접근하기 쓰기동작 익히기 학생 되기 함께 살아가기: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과 도덕에 맞는 행동원칙 배우기 협력하기와 자율성 기르기 유치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표현하기 세상 탐구하기 사물 탐구하기 물질 탐구하기 생물체 탐구하기 형태와 크기 탐구하기 양과 숫자에 접근하기 시간에서의 위치알기 공간에서의 위치알기 인식하기, 느끼기, 상상하기, 창조하기	II - 읽기 III - 쓰기 IV - 말하기 V - 예술사 L'histoire des arts VI - 정보통신 기술 (TIC) □ 적응과정 - 6 ^e I - 언어 학습 II - 읽기 III - 쓰기 IV - 말하기 V - 예술사 L'histoire des arts □ 중심과정 - 5 ^e (하위 체계 위와 동일) □ 중심과정 - 4 ^e (하위 체계 위와 동일) □ 진로지도과정 - 3 ^e (하위 체계 위와 동일) □ 시간표 (시간 배당) 6 ^e 시간표 5 ^e 시간표 4 ^e 시간표 3 ^e 시간표 공식 참고 문헌	II - 전체수준향상 III - 이행 1학년 프랑스어 프로그램 I - 학습목표 II - 내용 III - 진행 IV - 이행과 실행 V - 타 교과과목과의 관계 VI - 타 파트너와의 관계와 자료 목록화 -이하 중략- 가이드 프랑스어 프로그램의 가이드(2001) 학습관점 학습목표 언어에 관한 이론학습 이행과 학습진도 프랑스어 프로그램의 가이드(2006) 서문 소설 시 -이하 중략- 일정과 시험 일정 시험의 정의 -2009년 바칼로레아부터 시행될 프랑스어 모의고사 -인문계열 3학년 문학시험

위의 <표-III-9>에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는 프랑스의 ‘모국어’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체계를 제시하였다. 프랑스 교과 교육과정 문서는 캐나다(온타리오)와 비교했을 때 교과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시간표’, 혹은 ‘일정’이라는 항목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모든 교과목의 개별 시간 배당을 제시함으로써 총론적 성격을 나타낸다.

IV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향방

본고에서는 NCIC 자료 구축 과정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표준화 작업 즉 표준 인벤토리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그리고 세계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시 ‘총론’의 향방에 대하여 다음의 결론 및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존재해야 하는가?

본고에서의 연구결과, 세계 각국에서 교육과정 ‘총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문서의 존재 형태,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또한 ‘총론’ 문서는 없어도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없는 국가는 없으며,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은 대부분 교육과정 ‘총론’ 문서 존재와는 별도로 교과, 교육법 등에 기록되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학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NCIC 교육과정 항목의 표준화에 따른 표준 인벤토리별 정보 분석에서 알 수 있다.

‘총론’이라는 별도의 문서가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교육적 맥락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총론’과 유사어로 본다면, “‘총론’은 존재해야 하는가?”의 질문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되묻는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어디에 진술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라고 하겠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은 어디에 진술해야 하는가?

앞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 별도 문서의 존재에 대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과는 별도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 또는 ‘총론적인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어디에 담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진은 ‘총론’의 존재 보다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현재 비공식적인 용어로 ‘총론’ 문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론’이 교과와의 연계, 교수 학습 및

평가와의 연계를 충분히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총론’ 보다는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들 낱말에 대한 역할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진술하는 ‘장소’에 중복이 없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사항들은 총론 문서, 교육법, 교과 교육과정 및 교육부 홈페이지 등 크게 4가지 문서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법과 교육과정 총론간의 관계에 있다.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사항들은 교육 관계 법령과 교육과정 간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법령이 안내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1조부터 101,0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교육법이 일목요연하게 DB화되어 있고, 이것이 캘리포니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잘 안내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총론의 문서가 없으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교육법에서 매우 상세하게 총론을 대행하여 진술되어 있으며, 교육법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된다. NCIC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해당하는 사항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법에서 대부분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교육법 DB 사이트이다.



[그림-IV-1]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제시되는 교육법의 웹사이트

(<http://www.leginfo.ca.gov/cgi-bin/calawquery?code=edc&codebody=&hits=20>)

캘리포니아 교육법 중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해당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1>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중 교육과정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포함되는 사항의 예

총론 항목	캘리포니아 교육법에서의 제시 사례	우리나라
3.6.5. 유치원의 하루 수업시수	교육법 46117-46118 쉬는 시간 포함 최소 180분	교육과정 “최소 180분”
4.6.5. 초등학교의 하루 수업시수	교육법 46112-46113 1,2,3학년은 최소 230분, 4,5,6,7,8학년은 최소 240분	제시되지 않음
4.7.2. 초등학교의 교과목 및 시수 4.7.2.1.1. 필수 교과목의 종류	교육법 51220*	교육법, 교육과정에서 공히 제시(위 <표>중 일부 제시함)
	과목	내용
	영어	문학과 언어에 대한 지식과 감상, 그리고 말하기, 읽기, 듣기, 철자법, 글씨쓰기, 작문의 기술
	수학	개념, 연산기술, 문제풀기
	사회	인류학, 경제학, 지리, 역사, 정치,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과 관련되어 학생들의 성숙 정도에 맞추어 계획됨. 이 수업은 캘리포니아와 미합중국의 역사, 자원, 발전, 정부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을 포함한 미국 경제 체계의 발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동서양의 문화와 문명 현대 문제점들 천연자원의 현명한 사용법 포함
	과학	실험적 탐구과정과 환경생태계에서 인간의 위치에 중점을 둔 생물 및 물리
	시각 및 행위예술	예술적 감상 및 창의적 표현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댄스, 음악, 연극, 시각 예술 수업
	보건	개인, 가족, 사회의 건강을 위한 원칙과 실천을 위한 수업
	체육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일간의 수업일수 중에서 최소 총 200분 동안 신체와 정신의 건강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신체 활동을 강조
	기타	주 교육부에서 추가할 수 있음

* 표는 본 연구진에서 삽입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역할 구분을 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는데, 교육이념, 교육 목적, 교과 편제에 대한 비교 결과는 다음 <표-Ⅳ-2>와 같다.

<표-IV-2> 우리나라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교육법과 교육과정 진술 비교

비교항목	교육법	교육과정
교육이념	<p><교육기본법></p> <p>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p>	<p><2009 개정 교육과정></p> <p>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중략)</p>
교육목적, 목표	<p><초·중등교육법></p> <p>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009 개정 교육과정></p> <p>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하략)</p>
교과편제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시행 2011. 3.18]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 3.18, 일부개정]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p>	<p><2009 개정 교육과정></p> <p>(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p>

위 표에서 예시한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과편제는 교육관련 법과 교육과정에 완전히 같지는 않으면서 유사하게 진술되어 있고(교육 이념, 교육 목적), 특히 교과 편제의 경우 교과 구분(교과군 설정의 유무, 1,2학년 통합교과 누락 등), 교과 명칭(영어 및 외국어(영어)) 등에 있어 교육법과 교육과정이 다르게 진술된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핀란드, 일본 같은 경우는 총론이 있으며 교육목표, 교과 편제를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법 간에 중복 현상은 없다. 미국, 핀란드, 일본과 같이 교육법에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핵심 사항을 기술하는 국가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교육법 웹페이지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공통점도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의 개선 사항으로, 국가 교육 과정에 대해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을 진술하는 ‘장소’ 즉 교육법,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간 역할 분담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져 중복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담겨져야 하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NCIC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목적으로 개략적인 항목들을 추출하였으나, 이중 우선적이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으로 교육시간과 필수 교육 내용 2가지에 대해 논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시간

교육시간 중 연간 수업일수에 대한 규정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별도의 ‘총론’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학사력, 방학일, 휴무일 및 연간 수업일수, 연간 수업주수, 하루 수업 일수 등의 최소 교육시간 등에 대해서 자국의 교육부 홈페이지의 바로가기를 통해 친절 한 안내를 하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는 “‘연간 200일’로 제시하는 방식”과 “휴무일과 방학일 등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산정할 때 대략 연간 000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그 어느 경우든 대부분 국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의 학사력을 제공하고 있다. 교과목 편제 및 시간 배당기준은 교육법을 통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시간은 학교와 관계된, 가깝게는 교사, 학부모, 학생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계 외에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그림은 프랑스 교육부에서 전국을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통일되어 있는 학사력(Le calendrier scolaire)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이다.



[그림-IV-2] 프랑스 교육부의 주요 메뉴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연간 학사력
(<http://www.education.gouv.fr/pid25058/le-calendrier-scolaire.html>)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유치원의 경우 현재 교육과정 총론 기재사항이고, 초·중·고등학교는 제5차 교육과정까지 총론에 포함되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법 기재사항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일수는 엄격하게 규정하지만 국경일 외에 중요한 양대 방학과 연간 휴무일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 각국에서 학사력의 대부분을 일괄 적용하고 공지하는 동향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사력을 제공하는 같은 교육청 내 2개 초등학교로, 자세히 보면, 방학의 시작과 끝이 같으나, 이를 잘 알기 어렵다. 우리나라 교육 당국에서는 주5일 수업제로 인한 휴무 및 연간 수업일수 등 수업시간에 대한 안내 사항에 대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세계 각국의 교육시간에 대한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안내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표-IV-3> 우리나라 학교 수준 학사력 발표 내용:
같은 지역 2개 학교의 2010학년도 학사일정 제시 현황

구 분	기 간	비 고
시 업 식	2010. 3. 2 (화)	
입 학 식	2010. 3. 2 (화)	
여름 방학식	2010. 7. 19 (월)	
여름 방학	2010. 7. 20 (화) ~ 2010. 8.29 (일)	41 일
개 학 식	2010. 8. 30 (월)	
겨울 방학식	2010. 12. 24 (금)	
겨울 방학	2010. 12. 25 (토) ~ 2010. 1. 30 (일)	37 일
개 학 식	2011. 1. 31 (월)	
종 업 식	2011. 2. 17 (목)	
졸 업 식	2011. 2. 17 (목)	
학년말 방학	2011. 2. 18 (금) ~ 2011. 2. 28 (월)	11 일

월	주	요일별 날짜						휴업일			수업 일수	주요 행사 및 휴일	학년별 수업시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공 휴 일	휴 업 일			1	2	3	4	5	6
3	1	1	2	3	4	5	6	1	1	·	5	교육과정시수조정기(2-6), 시업식·입학식(2), 신입생학부모교육(3), 학급임원선출(5)	13	19	19	19	19	19
	2	8	9	10	11 계	12	13	1	·	1	5	교과학습진단평가(2-6G, 9), 전교임원선출(10), 임원연수(12), 토요휴업일(13)	18	21	26	26	28	28
	3	15	16	17	18	19	20	1	·	·	6	수행평가계획서제출(20)	24	25	30	30	32	32
	4	22	23	24	25 계	26	27	1	·	1	5	학부모총회(24), 토요휴업일(27)	20	21	26	26	28	28
	5	29	30	31	1	2	3	1	·	·	6	학부모상담주간(29-4.2)	24	25	30	30	32	32

출처: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2) 최소 교육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편제와 시간(단위) 기준 배당의 편성은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총론’을 대표하는 항목이 되어 왔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최소 이수 규정’에서 ‘이수의 기준’의 두가지 기준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교육시간 100%이수가 과연 졸업을 위한 최소법정 이수시간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없다. 다음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이수’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표-IV-4>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관련 규정

교육과정	교육법
<p><2009 개정 교육과정>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2. 중학교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p>

세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구조에서 본 ‘총론’의 항방(方向)

지금까지 최소 이수 수업일, 최소 이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가 해당 교육청의 장학 아래 자율적으로 판단해왔을 것이며, 별다른 쟁점이 되어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이 시작된 2011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교과군, 학년군의 적용으로 생기는 학교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화, 그로인해 전학생들의 교과 중복 이수 및 미이수 현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이 문제는 향후에도 무엇을 교육과정의 ‘이수’로 볼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다음은 졸업을 위한 최소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미국의 교육법 내용이다.

<표-IV-5>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중등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졸업 최소 이수 규정

캘리포니아 교육법

교육법 51402

(a) 초등학교의 졸업장은 전술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마친(completed) 학생에게만 수여한다.

교육법 51225.3

(a)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9~12학년 동안 다음을 이수해야 한다.

- (1) 다음 각 교과목의 최소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각 과목은 1년의 지속기간(a duration of one year)을 가져야 한다.
 - (A) 영어- 3개의 과목
 - (B) 수학- 2개의 과목
 - (C) 생물, 물리- 2개의 과목
 - (D) 사회과-3개의 과목; 미국의 역사와 지리, 세계의 역사문화지리 및 미국정부와 공민 1학기 과목, 경제 1학기 과목 포함
 - (E) 시각 예술과 행위 예술 또는 외국어는 1개의 과목
미국인 수화과목도 외국어로 간주된다.
 - (F) 체육은 2개의 과목, 학생이 면제되지 않을 때.
- (2) 기타 과목도 학교가 속한 지역 교육청에 따라 채택된다.

* 캘리포니아의 교육법에서는 교육과정, 교과목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REQUIRED COURSES OF STUDY’로 교육법 51210-51212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과목을 말함. 위의 <표-IV-1>에서 제시함

요컨대,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교육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학교 교육시간과 관련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고려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법 또는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총론’과 ‘교과’, ‘비교과’ 등 교육과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총론’이 무엇인가의 목적과 그 내용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시 ‘총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비교한 결과, 세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기하다. 그런데 무엇이 ‘총론’인가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 교육과정의 각론 즉 ‘교과’인가에도 적용된다. 교육내용을 교과의 핵심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 영역별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는 세계 각국 중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교과 교육과정에는 학교급별 교육에서 해당 교과의 의미와 성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중요하게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서 등 교재 편찬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교과 외의 범교과학습과 같은 국가사회적인 교육적 요구사항에 대한 조항, 방과후 학교 등 보육(care)에 대한 사항들, 교육청의 지원 사항 등 행정적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의 성격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총론’에 담는 내용 중 교과 공통의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은 교과 공통 지침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것도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돕기 위한 것도 있다. 본 고의 앞장에서 제시한 캐나다, 영국 및 독일 등의 교과 교육과정은 총론이 각론과 융합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이다.

<표-IV-6> 캐나다(온타리오) 주요 교과 교육과정중 ‘진로 교육’ 공통사항

	초등(1~8학년)	중학교 과정(9, 10학년)	고교 과정(11, 12학년)
모국어	<p><언어> 교육과정 계획 시 고려할 사항 교수적 접근 범교과 통합 학습 특별한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과정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과정 설계</p>	<p><영어> 교과과정 계획 시 고려할 사항 교육부자료 교수적 접근 특수한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과정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고려 사항 문해력, 수해력, 탐구/조사 기능</p>	<p><영어> 교과과정 계획 시 고려할 사항 교육부자료 교수적 접근 특수한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과정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로려 사항</p>

	초등(1~8학년)	중학교 과정(9, 10학년)	고교 과정(11, 12학년)
	언어 교육과정에서 반편견 교육 수해력과 탐구/조사 기능 언어 교육과정에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 언어 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u>진로 교육과 언어 교육</u> 언어 교육에서 보건과 안전 (중략)	영어과에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 온타리오 기능 인증과 핵심 기능 <u>직업 교육</u> 협동 학습과 다른 형태의 학습 전문 심화 기능을 위한 과정 영어과에서 보건과 안전 (중략)	문해력, 수해력, 탐구/조사 기능 영어과에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 온타리오 기능 인증과 핵심 기능 <u>직업 교육</u> 협동 학습과 다른 형태의 학습 전문 심화 기능을 위한 과정 영어과에서 보건과 안전 (중략)
수학	<수학> 수학에서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사항 교수법 범교과 통합 학습 특수 학생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 설계 ESL/ELD 수학에서 반편견 교육 문해력과 탐구/조사 기능 수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u>진로와 수학</u> 수학에서 건강과 안전 (중략)	<수학> 수학에서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사항 교수 접근 특수한 학생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 설계 ESL/ELD 수학에서 반편견 교육 문해력과 탐구/조사 기능 수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u>수학에서 직업 교육</u> 수학에서 건강과 안전 (중략)	<수학> 수학에서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사항 교수 접근 특수한 학생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고려사항 수학에서 반편견 교육 문해력과 탐구/조사 기능 수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u>수학에서 직업 교육</u> 온타리오 기능 인증과 핵심 기능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설계 수학에서 건강과 안전 (중략)
사회	<사회과, 역사, 지리> 교육과정 계획시 고려 사항 교수적 접근 범교과 및 통합 학습 시사적인 사건의 학습 예외적인 학생을 위한 설계 ESL/ELD. 사회과, 역사, 지리에서의 반편견교육 문해력, 수해력, 탐구/조사 기능 사회과, 역사, 지리에서의 기술의 역할 <u>사회과, 역사, 지리에서의 진로와 직업</u> 사회, 역사, 지리에서의 건강과 안전 (중략)	<캐나다와 세계> 교육과정 계획시 고려사항 교수적 접근 최근 사건의 학습의 중요성 예외적인 학생을 위한 설계 ESL/ELD.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반편견 교육 문해력, 수해력, 탐구/조사 기능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기술의 역할 <u>캐나다와 세계에서의 진로와 직업</u>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건강과 안전 (중략)	<캐나다와 세계> 교육과정 계획시 고려사항 교수적 접근 최근 사건의 학습의 중요성 예외적인 학생을 위한 설계 ESL/ELD.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반편견 교육 문해력, 수해력, 탐구/조사 기능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기술의 역할 <u>캐나다와 세계에서의 진로와 직업</u>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건강과 안전 (중략)

	초등(1~8학년)	중학교 과정(9, 10학년)	고교 과정(11, 12학년)
과학	<p><과학 기술> 과학 기술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 사항 교수적 접근 과학 기술 교육에서 건강과 안전 범교과 및 통합 학습 특수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고려 사항 환경 교육 과학 기술에서 비판적 교육 과학 기술에서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문해력 과학 기술 교육에서 ICT의 역할 과학 기술 교육에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 과학 기술 교육에서 진로 교육 (중략)</p>	<p><과학>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 사항 교수 접근 과학에서 건강과 안전 특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고려 사항 환경 교육 비판적 교육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문해력 문해력, 수해력, 탐구 기능 과학에서 ICT의 역할 온타리오 기능 인증과 핵심 기능 직업 교육 높은 성취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중략)</p>	<p><과학> 프로그램 설계시 고려 사항 교수 접근 과학에서 건강과 안전 특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고려 사항 환경 교육 비판적 교육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문해력 문해력, 수해력, 탐구 기능 과학에서 ICT의 역할 온타리오 기능 인증과 핵심 기능 직업 교육 높은 성취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중략)</p>

출처: 김진숙 외(2010)

앞서, ‘총론’과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의 구분을 논했거니와, 교육과정 ‘총론’의 존재 이유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의 ‘각론’에 대한 지도력의 발휘, 교육과정 실행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실효성 획득, 교육과정의 충실한 실행 등에서 찾는다면, 문서의 독립성보다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교과와의 연계라고 할 것이다(소경희, 2000; 홍후조, 2006).

참 고 문 헌

- 김수천(1997). 해방 후 우리 나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2000'. 교육과정연구, 15(2), 171-198.
- 김재춘(2002).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3), 77-97.
- 김진숙(2006). 제7차 교육과정의 문서 체재(體裁) 개선 연구. 교육과정연구, 24(1), 121-151.
- 김진숙·전효선·김성혜(2008). 국가교육과정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6
- 김진숙·전효선·김성혜(2008). 국가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실태 및 필요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6-2
- 김진숙·김성혜·남가영·김태훈(2009).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9.
- 변우희 외(2008). 관광학 연구동향 및 교육과정 분석과 『관광학총론』의 구성체계. 관광학 연구, 32(4), 35-53.
- 소경희(2000).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18(1), 201-218.
- 신세호 외(1981). 敎育課程改定案(總論)의 研究開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이승미(2009).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자율성 규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7(2), 83-112.
- 홍후조(2006).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 전환(3):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이론적·실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4(2), 183-206.

교육과정 정보 국내외 사이트

[네덜란드 교육부] www.minocw.nl

[네덜란드 교육과정개발원] www.slo.nl

[뉴질랜드 교육부] nzcurriculum.tki.org.nz

[대만 교육부] http://140.111.34.179/news09_course.php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독일 교육부] www.berlin.de/sen/bwf
[미국(캘리포니아) 교육부] <http://www.cde.ca.gov/ci/cr/cf/index.asp>
[스웨덴 교육부] www.skolverket.se/sb/d/190
[싱가포르 교육부] www.moe.gov.sg/education/syllabuses/
[영국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 www.qcda.gov.uk/13575.aspx
[영국 국가교육과정] <http://curriculum.qcda.gov.uk/>
[인도 교육부] www.ncert.nic.in/html/schoolcurriculum.htm
[일본 교육부] www.mext.go.jp/a_menu/01_c.htm
[중국 교육부] www.moe.edu.cn
[캐나다(온타리오) 교육부] www.edu.gov.on.ca/eng/teachers/curriculum.html
[프랑스 교육부] www.cndp.fr; www.education.gouv.fr
[핀란드 교육부] www.oph.fi
[호주 교육과정개발원] www.australiancurriculum.edu.au/Documents
[홍콩 교육부] www.edb.gov.hk
[잉카(INCA)] <http://www.inca.org.uk/index.html>
[유리디스(Eurydice)]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

[토 론]

학교 교육과정에서 ‘총론’의 위상에 대한 국제 비교와 국내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홍원표(연세대)

김진숙 박사님 등의 발표문은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re.kr/>)'에 각국의 교육과정 정보 가운데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의식과 착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특히 학교 교육과정 공부하는 분들은 '총론'이라는 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듯 가정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말은 일종의 산개된(dispersed) 용어로 그 정체와 위상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각국에서 '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한 후, 연구진이 파악한 국제적 동향으로부터 우리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 발표문의 큰 열개로 읽혔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연구진의 노력에 놀라움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발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분석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저처럼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이러한 연구들이 어느 개인이 집적하기에는 어려운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토론을 대행하기보다는 촉진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논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의 앞쪽에서는 '총론'의 애매함을 지적하면서, 본문 2절부터는 '총론으로 추정되는 것'이 국가별로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달리 말하면, 서론에서는 총론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후, 뒤이어 그것이 국가별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총론은 우리 말—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번역어도 각국의 언어마다 다를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로 이것이 특정 나라의 총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국가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혹시 여기에 자문화중심주의가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의 실태와 양상이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다른 나라 교육과정을 다소간 임의적/편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연구가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총론'의 실체가 애매하다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연구진들이 분석적으로 정의해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역할이나 위상, 내용에 따라 이러저러한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제안을 토대로, 각국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에서 총론의 인벤토리 목록을 길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분석적 정의보다는 리스트에 가깝고, 근거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하시는 분들이 이 용어를 쓰는 것들 들어보면, 뭔가 가족 유사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암묵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합의를 분명히 하면, 학문적 용어로서 '총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연구진의 정의로부터 출발한다면, 분석 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위의 첫째 문제제기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발표문을 보면서 총론을 만드는 주체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한데, 우리는 총론이라면 국가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표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주, 지역 주체, 교육청 혹은 심지어 단위학교가 총론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에는 총론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역별로 총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론의 정의가 무엇이라는 두 번째 논점과 밀접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사이의 관련으로서, 어쩌면 발표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총론이라는 문서가 교과 교육과정과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하나의 문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리고 총론이 교과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

습니다. 사실 이 구분이 흥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문서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최근 들어 교육과정 문서를 활발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리한 관찰이기는 하지만, 이 구분을 토대로 어느 것이 옳다, 혹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뜻입니다. 다들 일장일단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주제는, 사실 자주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 각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과들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가업(family business)인 것도 사실입니다. 즉, 분과학문이 고유의 전통과 내용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교 교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규칙과 지침과 원칙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후자에 대한 것이 대체로 총론이라고 보면, 공통 지침과 원칙을 강조하는 총론과 개별 교과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과 교육과정이 서로 갈등한 소지는 늘 잠복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형식의 차이는 이 긴장을 나름대로 조정한 산물일텐데, 이 숨겨진 차원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주제가 김진숙 박사님 팀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전공자들이 한 번 짚은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으로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